

중점연구 2012-4

# 한국 원조의 베트남 경제성장 기여효과 분석

2012. 12

---

## 연구집필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산업투자조사실 이재우 선임연구원

---

## 발간에 부쳐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은행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요약문〉 ..... i

I. 연구배경 ..... 1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4

    1. 원조 효과성에 관한 논의 배경 ..... 4

    2. 원조와 성장에 대한 이론적 조명 ..... 6

        가. 경제성장론의 발전과 원조 효과성에 대한 시사점 ..... 6

        나. 원조와 경제성장에 대한 실증적 분석 ..... 10

III. 베트남 대외원조 수원과 경제성장 ..... 15

    1. 베트남 경제개혁과 대외원조 수원 정책 ..... 15

        가. 베트남의 경제개혁 배경 및 내용 ..... 15

        나. 베트남의 수원 정책 ..... 19

    2. 베트남 대외원조 수원과 경제성장 ..... 24

        가. 베트남의 원조 수원 추이 ..... 24

        나. 베트남 경제성장 성과 ..... 30

IV. 대외원조의 베트남 경제성장 기여 분석 ..... 41

    1. 대외개발 원조의 경제성장 기여도 계량 모형 ..... 43

        가. 대외원조의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기여 ..... 43

        나. 대외원조의 인적자본 형성에 대한 기여 ..... 47

        다. 생산요소(고정자산투자, 인적자본)의 경제성장에  
            대한 장기적 기여 ..... 48

    2. 대외원조의 베트남 경제 성장 기여도 ..... 50

## 목 차

V. 한국 대베트남 원조의 경제성장 기여 분석 .....	54
1. 한국의 대베트남 원조 현황 .....	54
2. 한국 원조의 베트남 경제성장 기여도 .....	56
3. 한국의 지원분야별 기여 .....	57
VII. 결론 및 시사점 .....	62
〈부 록〉 한국 ODA 발전 현황 .....	64
〈참고문헌〉 .....	70

## 표 목차

〈표 III-1〉 도이머이 정책 추진 이후 주요 기간별 경제개혁 추진 내용 .....	18
〈표 III-2〉 베트남 원조 분야별 비중 추이 .....	28
〈표 III-3〉 베트남의 도로연장 길이 .....	35
〈표 IV-1〉 대외개발원조의 수원국 경제성장 기여도 분석의 방법론 .....	42
〈표 IV-2〉 국내민간투자 결정요인 분석 결과 .....	44
〈표 IV-3〉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결과 .....	46
〈표 IV-4〉 인적자본(졸업생 증가율) 결정요인 분석 결과 ..	48
〈표 IV-5〉 대외개발 원조의 베트남 경제 기여효과 (1986~2010년) .....	51
〈표 IV-6〉 대외개발 원조의 베트남 경제 기여효과 (1986~2000) .....	52
〈표 IV-7〉 대외개발 원조의 베트남 경제 기여효과 (2001~2010) .....	53
〈표 V-1〉 베트남 원조 분야별 비중 추이 .....	55
〈표 V-2〉 한국 대외개발 원조의 베트남 경제 기여효과 (1996~2010) .....	57
〈표 V-3〉 한국 대외개발 원조의 베트남 교통시설 지원 현황 .....	58
〈표 V-4〉 한국 대외개발 원조의 베트남 상수도시설 지원 현황 .....	59
〈표 V-5〉 한국 대외개발 원조의 베트남 교육시설 지원 현황 .....	60
〈표 V-6〉 한국 대외개발 원조의 베트남 의료시설 지원 현황 .....	61

〈그림 I-1〉 한국의 대베트남 원조 추이 .....	3
〈그림 II-1〉 개도국에 대한 전세계 원조액 추이 .....	5
〈그림 II-2〉 아프리카의 개발원조와 성장과의 관계 (1970~1999) .....	5
〈그림 III-1〉 빈곤감축전략과 경제개발계획의 상호관계 .....	21
〈그림 III-2〉 베트남의 대외원조 수원 추이 .....	25
〈그림 III-3〉 주요국별 베트남 원조 비중 추이 .....	26
〈그림 III-4〉 베트남 원조중 기술협력 원조 규모 및 비중 추이 .....	29
〈그림 III-5〉 베트남 GDP 규모 및 성장률 추이 .....	30
〈그림 III-6〉 베트남 수출증가 추이 .....	31
〈그림 III-7〉 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	32
〈그림 III-8〉 베트남 경제의 산업구조 변화 .....	33
〈그림 III-9〉 베트남의 고정자본 투자 추이 .....	34
〈그림 III-10〉 베트남의 전화 회선수 및 일인당 전력소비량 추이 .....	35
〈그림 III-11〉 베트남의 고정자본투자대비 유상원조 및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 추이 .....	36
〈그림 III-12〉 베트남의 저축률(GDP대비 저축액) 추이 .....	37
〈그림 III-13〉 베트남의 3차 교육기관 학생수 및 과학논문 편수 추이 .....	38
〈그림 III-14〉 베트남의 유아 및 5세 이하 사망률 .....	38
〈그림 III-15〉 베트남의 일인당 GNI 규모 및 증가율 추이 .....	39
〈그림 III-16〉 베트남의 소득 분위별 비중 추이 .....	40
〈그림 IV-1〉 대외개발원조의 수원국 경제성장 기여에 대한 개념도 .....	41
〈그림 V-1〉 한국의 대베트남 대외개발원조 추이 .....	54

## 요약





## 요 약

### I. 연구배경

- 원조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원조효과성 제고의 이론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이 시행한 원조가 수원국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분석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원조규모가 확대되고, DAC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ODA의 선진국으로 입지가 강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원조규모는 1987년 GNI의 0.02% 수준인 2,300만달러 수준에서 2010년에는 GNI의 0.12% 수준인 11억 7,300만달러 수준으로 증가
- 분석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원조 대상국이며 대외원조 수원국으로서 우등생으로 평가받고 있고 베트남을 선택함
  - 한국의 베트남 원조규모는 총 4억 5,000만달러로 한국의 수행한 총 양자간 원조중 9%를 차지
  - 베트남은 OECD를 비롯한 국제원조사회의로부터 1986년 개혁개방정책을 채택, 시장경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적개발원조를 적극적, 효과적으로 활용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인 원조에도 불구하고, 수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논의가 촉발됨

- 2000년 ‘UN 새천년정상회의’의 밀레니엄선언(Millennium Declaration), 2003년 로마선언, 2008년 아크라 협의 등 원조효과성 제고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원조와 경제성장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Harrod-Domar 성장론, Solow 성장론, 인적자본 축적론 등을 통해 이루어짐
  - Harrod-Domar 모형의 핵심은 경제가 지속적, 안정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축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 이 모형은 원조정책의 방향은 물적자본 투입이 저개발국이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Solow 성장론은 자본축적을 통한 성장은 한시적으로만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은 오직 생산성 증대를 통해서만 가능
    - 저개발국의 경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면, 개도국 개발원조 단순히 투자증대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총요소생산성에 관련된 원조가 필요함을 보임
  - Lucas(1988)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은 지속적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 경제성장에서 인적자본의 역할을 재조명
    - Romer(1990)는 Solow 모형에서 외생적으로 주어진 블랙박스 변수를 기업 투자(R&D)의 결과로 내생화시키고 인적자본의 중요성으로 강조함
    - 원조 효과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즉 물적자본의 증대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산시설에 참여하는 인력의 양성을 같이 고려하여야 함
- 원조와 경제성장간 관계에 대한 다양한 실증적 분석에도 불구하고 원조가 경제성장에 대한 미친 영향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음

- 1세대(1950~70년대)의 초기 분석들은 해로드-도마(Harrod-Domar) 모델이나 이 모델의 연장선상에 있는 솔로우-스완(Solow-Swan) 모델과 같이 개발도상국의 성장단계에 따른 단순한 분석임
  - 직접적인 ODA 효과를 성장모델로 분석한 연구는 파나넝(Papanek, 1972)이 최초였으며, 이어 굴라티(Gulati, 1978) 등이 성장모델을 통한 ODA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으나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 함
- 1980~90년대 초반의 2세대 연구들(Mosley et al., 1987; Boone, 1994 등)은 1세대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개발도상국의 인구, 경제규모, 공여국-수원국 간 전략적 관계들을 매개변수로 활용
  - 다울링과 히맨쯔(Dowling and Hiemenz, 1983), 모슬레이(Mosley, 1980) 등의 학자들은 성장모델에서 ODA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고 분석
  - 고타 및 이슬람(Gupta and Islam, 1983), 레비(Levy, 1988) 등이 ODA가 성장에 긍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
- 3세대 실증적 분석은 원조효과성에 있어 수원국의 경제적,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
  - 이들은 개발원조가 수원국의 성장에 ‘평균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수원국의 개발환경이 건전할 때’라는 조건 하에서는 원조효과가 긍정적일 수 있다고 분석결과를 보임

### Ⅲ. 베트남 대외원조 수원과 경제성장

-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 경제개혁을 실시하며 시장경제 활성화와 경제의 개방화를 추진함

시기구분	주요정책	성과 및 문제점
다부문 경제체제 수립기 (도이머이 1단계, 1986~199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 소비재, 수출 육성</li> <li>· 대외개방 정책</li> <li>· 농업개혁</li> <li>· 외국인투자유치 촉진</li> <li>· 기업의 독립성 부여</li> <li>· 금융기관 분리 및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증산, 쌀수출</li> <li>· 다부문경제체제 수립</li> <li>· 실업증가</li> </ul>
시장경제체제 준비기 (도이머이 2단계, 1992~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영기업 민영화</li> <li>· 강력한 통화관리</li> <li>· 은행간 외환시장(1994)</li> <li>· 공업화, 기간산업 육성</li> <li>· 국영기업법 제정</li> <li>· 증권거래소 설립 (호치민 2000, 하노이 2005)</li> <li>· 금융 및 재정 개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투자 활기</li> <li>· 미국 및 국제금융기관 엠바고 해제</li> <li>· 미국과 국교 정상화(1995)</li> <li>· WTO 가입 신청(1995)</li> <li>· ASEAN 가입(1995)</li> <li>· 미국과 무역정상화(2001)</li> </ul>
개방경제체제 확립기 (도이머이 3단계, 2006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투자법, 기업법 제정</li> <li>· 국영기업 개혁 본격화</li> <li>· WTO 양허안 이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 가입(2007)</li> <li>· 미국으로부터 PNTR 지위 획득(2006)</li> <li>· 최초의 민간은행 상장(2006)</li> </ul>

□ 베트남은 경제개혁을 시도하면서 부족한 투자자원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외개발원조 자금 유치에 노력

- 베트남은 도이머이 경제개혁을 통해 적극적인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며 초기 부족한 개발투자자금 확보의 필요성이 부각됨
- 서방국교 정상화를 통해 외자도입 및 원조를 위한 대외협력관계 구축 (1986년~1992년)
  -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주의에 기초한 다분야 시장경제원칙을 제정하는 등 개혁개방정책이 절정에 이르면서 파리에서 베트남 원조 공여국회의가 개최되고 서방국가의 원조대상국으로서 베트남이 무대에 등장하게 됨
- 주인의식을 가지고 국제원조 기구와의 협의를 통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원조의 개발 효과성 제고 노력(1993년~2006년)

- 베트남은 2001년 사회경제개발전략 10개년 계획(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2001~2010; SEDS)을 마련하고 이를 가지고 IMF, World Bank와 차관지원을 협의함

○ 최근에는 원조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국제원조과제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2006년~현재)

□ **베트남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원조는 1993년 이후 2010까지 연평균 15.5%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

○ 베트남 수원규모는 1993년 2억 5,000만달러 규모였으나 2009년에는 37억달러 규모로 확대된 이후 2010년도 29억달러로 감소함

○ 대외원조가 본격화된 1993년부터 유상원조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1993~2010년간 총원조중 유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64%를 기록하고 있음

○ 공여국별로 보면, 일본이 1980년 이후 총원조의 28.3%를 차지하여 가장 활발하게 베트남에 대한 원조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 원조별 분야별 추이를 보면 경제인프라에 대한 원조가 2005년 이후 총원조중 42% 수준을 차지하며 원조를 주도하고 있음

□ **베트남 경제는 정부의 개혁·개방을 통한 적극적 경제개발과 원조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1986년 이후 연평균 7.1%의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베트남의 일인당 GNI는 1992년 130달러였으나 이후 연평균 13%의 증가세를 보이며 2010년에는 1,160달러로 상승함

○ 베트남의 수출은 1986년 17억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연평균 17.4%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 2010년에는 825억달러 규모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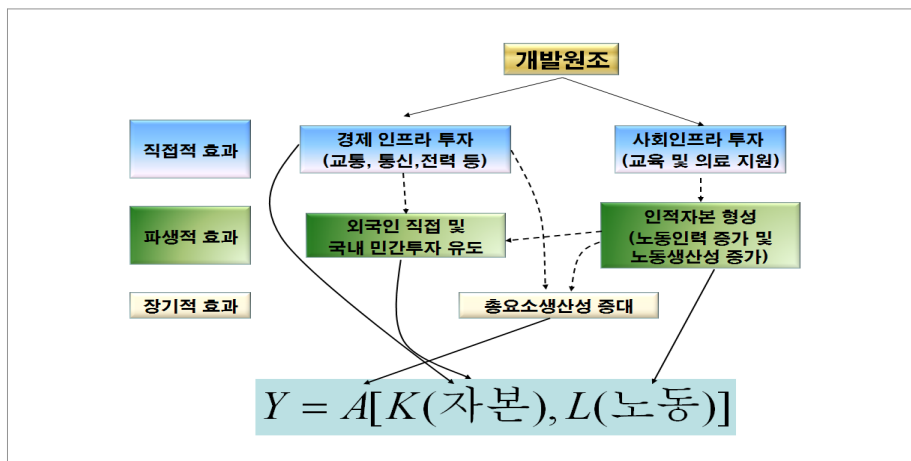
○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도입 정책 및 경제 인프라 형성 등 경제적 성장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도 증가함

-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0년 이후 연평균 21%의 성장세를 보임
- 베트남의 고장자본투자는 1991년 이후 20년간 연평균 19.3%의 성장세를 보이며 2010년에는 연간 413억달러가 투자됨

#### IV. 대외원조의 베트남 경제성장 기여 분석

- 대외원조는 수원국의 고정자본투자 증가 및 인적자본 형성에 대한 기여를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됨

대외개발원조의 수원국 경제성장 기여에 대한 개념도



- 대외원조가 베트남 민간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상원조는 국내 민간투자에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무상원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함
- 모형분석 결과 전기의 유상원조가 1% 증가할 경우 국내 민간투자는 0.07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국내민간투자 결정요인 분석 결과

	계 수	t값	P-Value (오류 확률)
전기의 유상원조 증가율	0.0782	5.75	0.0%
전기의 무상원조 증가율	0.3267	1.66	12.3%
전기의 철도길이 증가율	-0.1082	-0.15	88.5%
전기의 졸업생수 증가율	2.6093	1.37	19.7%
전기의 경제성장률	-1.6910	-0.35	73.1%
C	0.1271	0.38	71.1%

주: OLS 방식으로 추정했으며, R<sup>2</sup>는 0.766임

□ 대외원조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상원조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무상원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2기전의 유상원조가 1% 증가할 외국인 직접투자가 0.04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95% 유의함을 보임

- 무상원조의 경우 1% 증가할 때, 0.058%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결과

	계 수	t값	P-Value (오류 확률)
2기전의 유상원조 증가율	0.0433	2.41	3.7%
4기전의 무상원조 증가율	0.0585	0.30	76.7%
전기의 철도길이 증가율	-0.0749	-0.08	94.0%
2기전의 졸업생수 증가율	-2.4788	-1.26	23.7%
전기의 경제성장률	6.3806	1.22	25.1%
더비(신기업법 개정)	1.5426	4.80	0.1%
C	0.1271	0.38	71.1%

주: OLS 방식으로 추정했으며, R<sup>2</sup>는 0.828임

□ 대외원조가 베트남 인적자본 현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상 원조와 무상원조 모두 인적자본(졸업생 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유상원조의 경우 4기전 유상원조가 1% 증가할 경우 졸업생이 0.002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무상원조는 5기전 원조규모가 1% 증가할 경우 졸업생이 0.019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무상원조가 유상원조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상원조가 일반적으로 교육부문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인적자본(졸업생 증가율) 결정요인 분석 결과

	계 수	t값	P-Value(오류 확률)
4기전의 유상원조 증가율	0.0028	3.49	0.3%
5기전의 무상원조 증가율	0.0199	2.36	3.1%
2기전의 교원수 증가율	0.8103	3.83	0.1%
C	-0.0031	-0.56	1.5%

주: OLS 방식으로 추정했으며, R<sup>2</sup>는 0.700임

□ 베트남의 경제개혁(1986년) 이후 대외원조는 총GDP의 5.5%를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대외원조는 베트남의 1986년 이후 고정자본투자의 17.0%를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유상원조는 민간투자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발로 직접적 효과(유상 원조)의 40% 가까운 투자유발 효과를 발생시킴
- 유상원조가 총 고정자본투자의 11.3%(원조액+유발효과)를 기여하고, 무상원조는 5.7%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인적자본(졸업생수)에 대한 기여는 총 0.7%인 것으로 분석됨
- 유상원조가 총졸업생의 0.5%를 기여한 반면, 무상원조는 0.2%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대외개발 원조의 베트남 경제 기여효과(1986~2010년)**

	생산요소별 기여				GDP에 대한 기여			
	고정자본투자 기여 (총고정자본투자 대비%)		인적자본 기여 (총졸업생 대비 %)		단기적 기여	장기적 기여		총기여
	직접 기여	파생 기여	총기여	총기여	고정자본 증가 효과(A)	고정자산 투자의 기여(B)	인적 자본 기여(C)	A+B+C
유상원조	8.1%	3.2%	11.3%	0.5%	3.3%	0.4%	0.0%	3.7%
무상원조	5.7%	-	5.7%	0.2%	1.7%	0.1%	0.0%	1.8%
총 원 조	13.8%	3.2%	17.0%	0.7%	5.0%	0.5%	0.0%	5.5%

- 대외개발원조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를 시기별로 보면, 개발초기 시기의 경우에 그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 도이모이 개혁 이후 2000년까지의 원조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7.2%인 것으로 나타남
- 고정자본투자에 대한 기여는 총고정자본의 28.4%를 차지하여 개발 초기에 대외원조의 직접효과 또는 파생적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 2001년부터 2010년간 대외개발원조의 베트남 GDP에 대한 기여도는 4.4%로 낮아짐

대외개발 원조의 베트남 경제 기여효과(1986-2000)

	생산요소별 기여				GDP에 대한 기여			
	고정자본투자 기여 (총고정자본투자 대비%)		인적자본 기여 (총졸업생 대비 %)		단기적 기여	장기적 기여		총 기여
	직접 기여	파생 기여	총기여	총기여	고정자본 증가 효과(A)	고정자산 투자의 기여(B)	인적 자본 기여(C)	A+B+C
유상원조	9.1%	9.3%	18.4%	0.9%	3.9%	0.9%	0.1%	4.9%
무상원조	10.0%	-	10.0%	0.5%	2.1%	0.2%	0.0%	2.3%
총 원 조	19.1%	9.3%	28.4%	1.4%	6.0%	1.1%	0.1%	7.2%

V. 한국의 대베트남 원조의 경제성장 기여 분석

- 한국의 대베트남 원조는 1989년 무상원조 3만달러를 시작(집행기준)으로 연평균 47%라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2010년에는 1억 100백만달러를 기록함
- 무상원조는 연평균 39%의 증가세를 보이며 2010년 3,200백만달러로 원조규모가 증가함
- 유상원조 규모는 1996년 363만달러를 지원한 이후 연평균 23%의 성장세를 보이며 2010년에 6,875만달러로 증가함
  - 유상원조가 총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임
- 분야별로 보면 경제인프라에 대한 원조가 67.9%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인프라에 대한 원조가 30.6%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의 대베트남 1996년 이후 개발원조의 GDP 기여도는 0.1%인 것으로 분석됨(원조액대비 1.25배 효과)

- 유상원조의 GDP 기여도는 0.07%, 무상원조의 기여도는 0.03%인 것으로 분석됨
  - 원조에 따른 단기적 고정자본투자 증가로 GDP의 0.09%를 기여했으며, 장기적 효과에 따른 기여는 0.0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고정자본투자에 대한 기여는 0.26%로 직접적 효과가 0.25%, 파생적 효과가 0.01%를 차지함
  - 파생적 효과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은 한국의 대베트남 원조의 시작 시점이 베트남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궤도에 올라선 이후로 원조 초기에 발생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임
- 인적자본 형성(졸업생수)에 대한 기여는 유상원조가 아주 미미하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상원조의 기여도는 0.002%로 유상원조보다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남
  - 인적자본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2000년대의 총원조 분석과 동일한 결과로 한국의 무상원조 역시 인적자본에 대하여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한국 대외개발 원조의 베트남 경제 기여효과(1996-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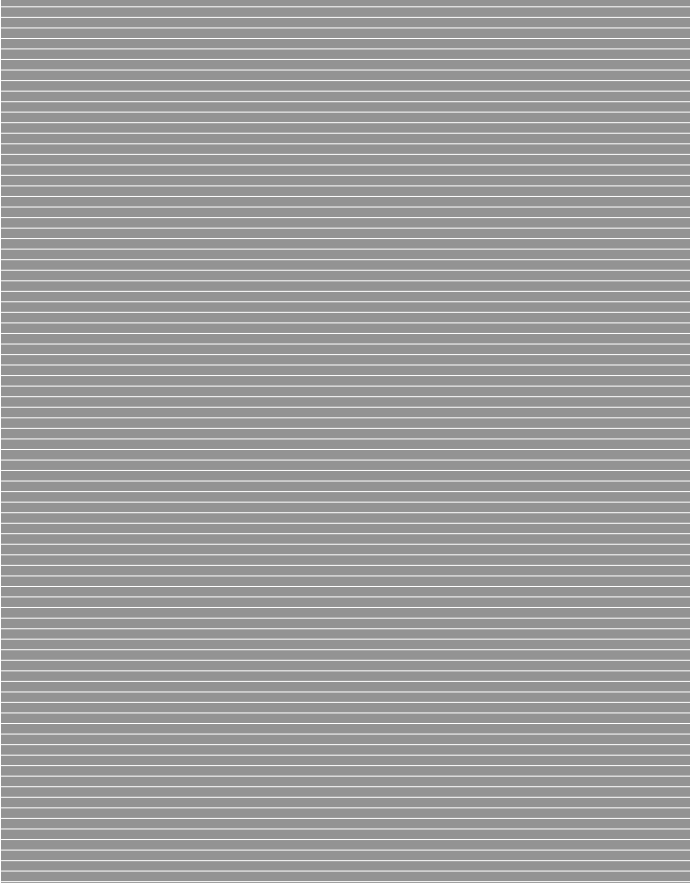
	생산요소별 기여				GDP에 대한 기여 (GDP 대비 %)			
	고정자본투자 기여 (총고정자본투자 대비%)		총효과	인적자본 기여 (총졸업생 대비 %)	단기적 기여	장기적 기여		총기여
직접 효과	파생 효과	고정자본 증가 효과(A)				고정자산 투자의 기여(B)	인적 자본 기여(C)	
유상원조	0.16%	0.01%	0.17%	0.000%	0.06%	0.01%	0.00%	A+B+C
무상원조	0.09%	-	0.09%	0.002%	0.03%	0.003%	0.00%	
총 원 조	0.25%	0.01%	0.26%	0.002%	0.09%	0.01%	0.00%	

#### □ 분야별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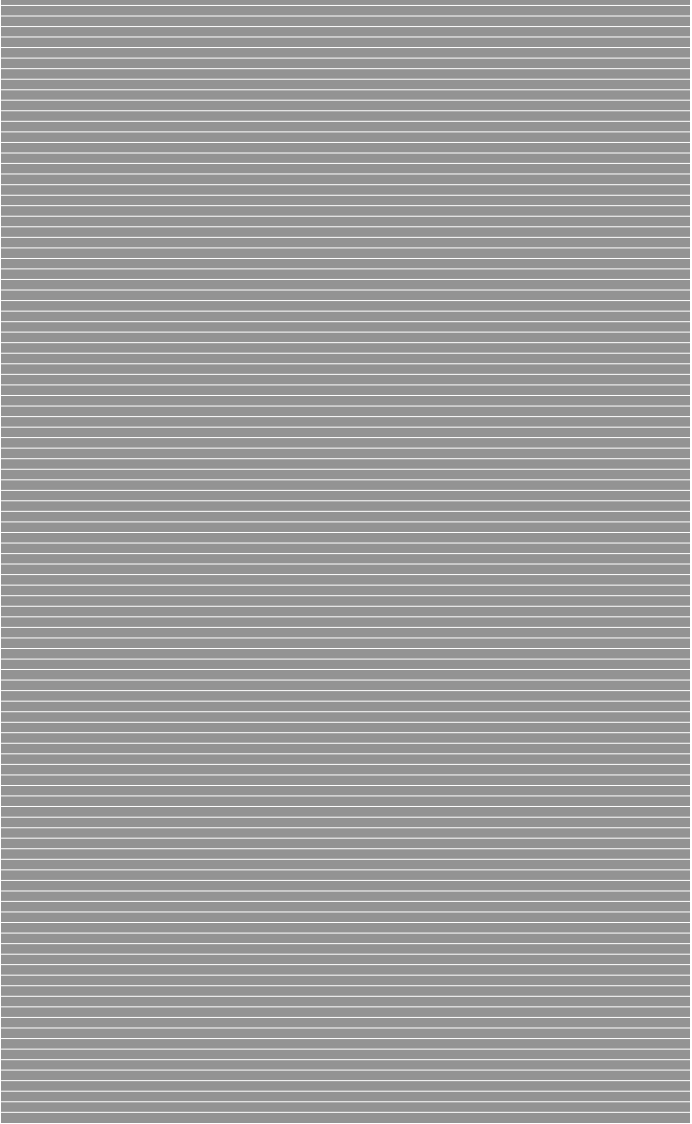
- 한국의 교통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총 연장 155.6Km의 도로가 건설됨
  - 이는 경인고속도로(29.5Km)를 5.3개를 건설한 것과 동일한 것임
-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총정수량 163,000m<sup>3</sup>/일 규모의 상수도 시설이 설치됨
  - 한국의 김포시 총정수량 (137,000m<sup>3</sup>/일)규모의 시설

## VI. 결론 및 시사점

- 대베트남 대외개발원조가 베트남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외개발원조가 파생효과를 발생시켜 원조액 이상의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에 대한 대외개발원조는 유상원조의 경우 국내 민간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를 견인하여 총고정자본 투자 증가에 기여함
  - 또한 유상원조는 인적자본 형성에도 기여하여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형성하는데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무상원조는 인적자본 형성에 대한 기여에 있어 유상원조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무상원조가 주로 지원되는 분야 즉 교육, 의료 등의 사업으로 통한 인적자본에 대한 기여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한국 원조의 베트남 경제성장 기여효과 분석





# I

## 연구배경

- 우리나라는 원조규모가 확대되고, DAC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ODA의 선진국으로 입지가 강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원조규모는 1987년 GNI의 0.02% 수준인 2,300만달러 수준에서 2010년에는 GNI의 0.12% 수준인 11억 7,300만달러 수준으로 증가
    - 유상원조가 1989년 180만달러 수준에서 2010년 3억 2,700만달러 수준으로 연평균 27%의 높은 성장세를 보임
    - 무상원조는 1987년 140만달러 수준에서 22년간 연평균 28%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0년에는 5억 7,400만달러 규모의 원조를 수행함
    - 다자간 원조의 경우도 연평균 11%의 성장세를 보이며 2010년도에는 2억 7,300억달러를 집행함
  - 또한 한국은 2009년 원조 선진국 클럽인 OECD의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외원조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함
- 한국이 시행한 원조가 수원국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원조효과성을 제고하여 원조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음
  -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논의는 선진국의 대외원조가 본격화된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이슈임

- 그 동안 국제사회의 대규모 개발원조에도 불구하고 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몇 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원국이 아직 빈곤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효과적인 원조 전달방식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음
- 한국의 원조규모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적은 규모의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조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필요성이 있음
-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원조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 GNI 대비 0.1% 수준에 불과하여 OECD DAC회원국의 평균인 0.32%와 UN권고사항인 GNI 대비 0.7%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수준임
- 그러나 단기적으로 원조규모를 타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할 수 없는 상황 이므로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원조의 질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함

□ 분석대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최대 원조 대상국이며 대외원조 수원국으로서 우등생으로 평가받고 있고 베트남이 최적으로 판단되므로 해당국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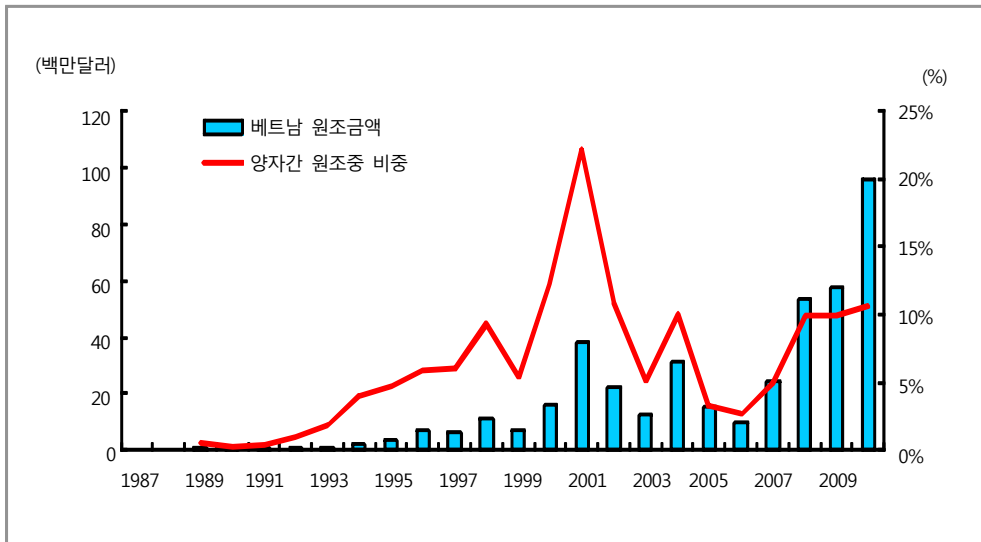
- 베트남은 1986년 개혁개방정책을 채택, 시장경제로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OECD를 비롯한 국제원조사회로부터 공적개발원조를 적극적, 효과적으로 활용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 베트남 정부는 정책적 일관성(Policy Coherence) 및 주인의식(Ownership) 을 가지고 대외원조를 효과적 활용하여 베트남 경제개발 및 성장을 유도 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음
- 한국의 대베트남 원조규모는 총 4억 5,000만달러로, 베트남은 한국이 수행한 양자간 원조 총규모의 9%를 차지하는 한국 최대의 수원국임
- 베트남에 대한 원조는 1989년 3만달러의 무상원조로 시작하여 2010년도에 9,600만달러 규모로 증가함
- 베트남에 대한 무상원조는 1억 7,600만달러 규모이며, 유상원조는 2억 7,300만달러로 유상원조가 61%를 차지하고 있음

2 ● 한국 원조의 베트남 경제성장 기여효과 분석



- 한국이 수행한 총 양자간 원조에서 유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인 것을 고려할 때, 베트남에 대한 원조의 경우 유상원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임
- 따라서 베트남은 한국 대외원조의 수원국 경제성장 기여도를 분석하는 대상으로 원조기간, 원조규모 측면에서 최적임
- 그러나 베트남에 대한 원조가 유상원조로 편중되어 있어 분석의 결과가 유상원조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한계는 존재함

〈그림 I-1〉 한국의 대베트남 원조 추이



자료: OECD D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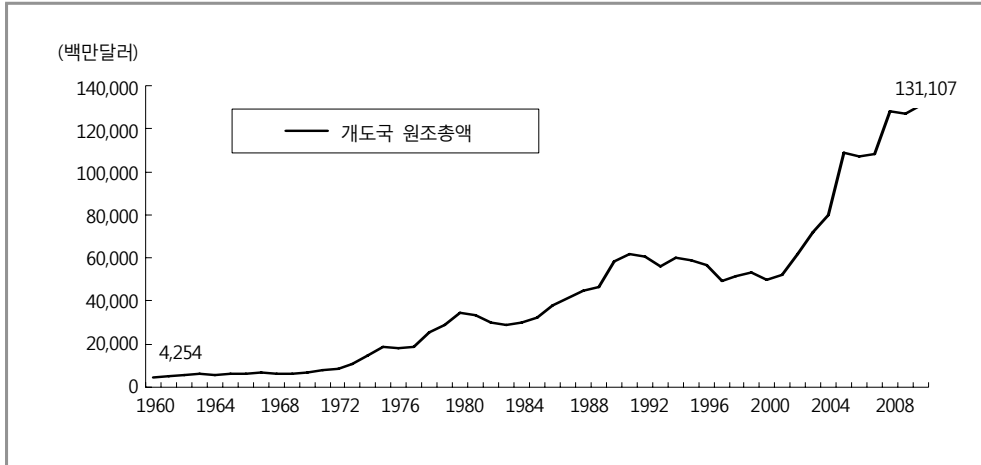
## II

#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1. 원조 효과성에 관한 논의 배경

-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인 원조에도 불구하고, 수원국의 경제 성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촉발됨
  -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원조는 1950년부터 시작되어 DAC가 형성된 1960년대부터 활성화되어 연평균 7%의 증가세를 보이며 2010년에는 연간 1,311억 달러 규모로 확대됨
    - 개도국에 대한 원조는 1960년 42억달러 수준에서 1990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임
    - 1990년대 들어서 사회주의권 국가의 붕괴 등 탈냉전에 따른 외교적 목적의 원조감소, 아시아 금융위기 등에 따른 세계적 경기둔화 등으로 원조가 위축됨
    - 2000년대부터 ‘Millennium Summit(새천년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빈곤 타파에 관한 범세계적으로 UN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를 의제로 설정하는 등 빈곤감축을 위한 전세계적 노력으로 원조 규모가 다시 증가하게 됨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성장은 매우 부진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됨
    -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개발원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성장률(growth per capita)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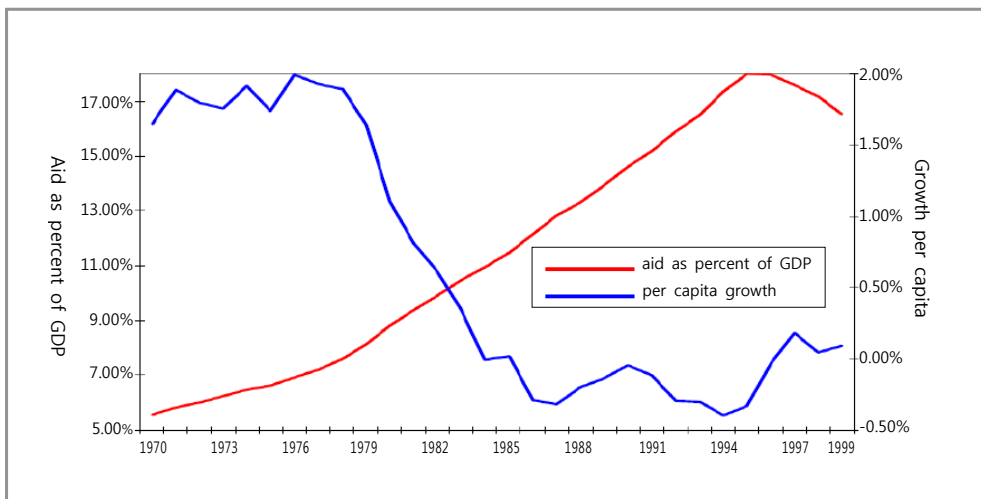
〈그림 II-1〉 개도국에 대한 전세계 원조액 추이



자료: OECD DAC

- 이러한 분석을 통해 원조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경제가 빈곤의 함정(Poverty Trap)과 원조의 악순환, 원조의 종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함을 보임
- 따라서 개도국의 원조의 종속 및 빈곤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효과적인 원조방식에 대한 논의가 확대됨

〈그림 II-2〉 아프리카의 개발원조와 성장과의 관계(1970~1999)



자료: Can Foreign Aid Buy Growth?(Easterly, 2003), 맹준호(2012) 재인용

□ 이에 따라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논의와 공감대가 확대됨

- 2000년 ‘UN 새천년정상회의’에서 밀레니엄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을 통해 빈곤퇴치가 최우선 과제를 확인하고 원조 효과성 제고에 역점을 둠
- 2003년 로마선언에서는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원조의 조화가 강조되면서 효과성 중심의 논의가 활기를 띠
- 다자간 개발기구들은 2002년 6월, 2004년 2월 두 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원조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성과중심의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
- 2008년 9월 개발 파트너들은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된 『제3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포럼』에서 파리선언 달성 노력을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

## 2. 원조와 성장에 대한 이론적 조명

### 가. 경제성장론의 발전과 원조 효과성에 대한 시사점<sup>1)</sup>

□ Harrod-Domar의 성장론 : 물적자본 투입을 통한 성장

- Harrod-Domar 모형의 핵심은 경제가 지속적, 안정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축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 이 모형은 다음의 총계변수들에 관한 네 개의 식으로 요약됨

$$Y/K = a \text{ ----- (1)}$$

$$S = \gamma Y \text{ ----- (2)}$$

$$I = \Delta K + \delta K \text{ ----- (3)}$$

$$I = S \text{ ----- (4)}$$

1) 본 절은 정혁의 “유효한 개발원조 정책수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2012)을 요약 발췌한 것임

- 식 (1)은 총생산 Y의 총자본 K 대비 비율(output-to-capital ratio)이 일정 상수  $\alpha$  라는 것이고, 식 (2)는 총저축이 총생산의 일정비율이라는 것임
  - 이는 Kaldor(1957)에 의해 산업화된 나라들(특히 영국과 미국)의 성장 과정에서 관찰된 실증적 관계로 당시 자명하게 받아들여짐
- 식 (3)은 연간 총투자가 자본축적(고정자본 증가량  $\Delta K$ )와 기존 자본의 감가상각( $\delta K$ )의 보전에 사용된다는 것이고, 식 (4)는 총투자와 총저축이 균형을 이룬다는 것으로 식 (4)는 자본시장이 청산된다는 균형관계이고, 식 (3)은 회계 항등식임
  - $\delta$ 는 감가상각률임
- 이 모형에 따르면 경제성장(1인당 국민소득)률은 저축률( $\gamma$ )과 생산대 자본 비율( $\alpha$ )이 클수록 상승하고, 인구성장( $n$ )과 감가상각률( $\delta$ )이 클수록 하락하게 됨
- 모형을 풀면, 총생산 혹은 총소득의 성장률은  $\gamma\alpha - \delta$ 이고, 인구성장률이  $n$ 으로 일정할 경우, 1인당 국민소득( $y \equiv Y/L$ )의 성장률 식 (5)가 됨

$$g_t = \gamma\alpha - \delta - n \text{ ----- (5)}$$

- 생산 대 자본 비율( $\alpha$ )는 주어진 생산기술에 의해 정해져 있으므로, 성장을 촉진시킬 정책변수는 저축률( $\gamma$ )로 저축과 투자의 촉진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정책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됨
- 이러한 결과는 보다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강제저축도 유효한 정책수단이 된다는 근거를 제공함
- 이 모형은 원조정책의 방향은 물적자본 투입이 저개발국이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이 모형에 따르면 저개발국 빈곤의 이유는 그 나라의 총저축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에 있고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의 성장률도 매우 낮은 것임

- 따라서 저개발국가에 대한 최선의 원조정책은 투자를 직접 늘릴 수 있는 물적 자본을 투입하여 저축과 투자의 증진을 유도한다는 결론이 도출됨

□ 솔로우(Solow) 성장론 : 생산성 개념(Total Factor Productivity) 도입

- Solow는 한계수익체감의 가정하에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경제성장을 수량화하는 구체적 개념으로 총생산함수(Aggregate Production Function)을 도입
- 이는 생산요소량과 생산산출량 사이의 총계적 관계를 설정하는 함수로, 두 가지 생산요소 총노동( $L$ )과 총자본( $K$ )로 식(6)과 같은 생산함수를 구성함

$$Y = AF(L, K) \text{ ----- (6)}$$

- 식(6)에서  $A$ 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로 복합생산요소의 생산성을 의미함
- 이 함수의 의미는 소득증대는 생산요소의 양적확대와 생산요소의 질의 향상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Solow 모형과 Harrod-Domar 모형 모두 성장의 기제에 자본축적이 설정되어 있지만, Harrod-Domar 모형에서는 저축률 상승을 통한 투자증대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반면,
- Solow 모형에서는 자본축적을 통한 성장은 한시적으로만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은 오직 생산성 증대를 통해서만 가능
- 특히, 생산요소들이 고정된 상태에서 자본축적이 진행될 경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점점 감소하게 된다고 가정함으로써 생산성 증대의 중요성을 강조
- 저개발국의 경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면, 개도국 개발원조 단순히 투자증대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총요소생산성에 관련된 원조가 필요함을 보임

- 그러나 Solow는 총요소생산성( $A$ )는 블랙박스라 같은 것으로 생산성으로 형성하는 것에는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원조정책에 있어서 전략적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주지는 않음

#### □ 루카스(Lucas)와 로머(Romer) 성장론: 인적자본의 중요성

- Lucas(1988)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이 지속적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 경제성장에서 인적자본의 역할을 재조명
  - Lucas는 인적자본의 경우 물적자본(Physical Capital)과 달리 한계수확 체감이 작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
  - Lucas는 인간경제활동의 시간 배분(Time Allocation)의 문제를 경제개발의 근본 요인으로 도입
  - 즉, 직접 생산에 쓰는 노동시간과 교육과 연구개발 등의 인적자본 투자에 쓰는 시간의 적정 배분이 실질소득의 지속가능 성장률을 결정한다는 것이 Lucas 모형의 주된 메시지임
- Romer(1990)는 Solow 모형에서 외생적으로 주어진 블랙박스 변수를 기업 투자(R&D)의 결과로 내생화시키고 인적자본의 중요성으로 강조함
  - 경제개발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Romer의 기여는 기업의 의도적인 기술 투자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더불어 Romer(1990)가 강조하는 점은 내생적 기술투자에 의한 성장 가능성과 성장률 모두 한 나라의 인적자본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임
  - 인적자본의 수준이 너무 낮으면 내생적 기술투자에 의한 성장이 아예 가능하지 않을 수 있고, 인적자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역치를 넘어 내생적 기술투자에 의한 성장이 가능한 경우 그 성장률의 크기 또한 인적자본의 크기에 의해 결정됨

- 이러한 인적자본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원조전략에 있어서 인적자본 형성에 대한 고려를 부각시키는 것임
- Lucas와 Romer 이론의 핵심은 인적자원에 대한 것으로 Lucas가 생산 요소로서 인력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였다면, Romer는 생산성의 요소로서 인적자본의 역할을 부각시킨 것임
- 원조 효과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즉 물적 자본의 증대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산시설에 참여하는 인력의 양성을 같이 고려하여야 함
- 도로, 댐, 다리 등 사회 간접자본과 인프라의 투자를 고려할 경우 투자 지역에 새로운 기술투자나 인적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나. 원조와 경제성장에 대한 실증적 분석<sup>2)</sup>

- 원조와 성장에 대한 분석은 경제성장의 이론과 계량경제학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각도로 이루어짐
- 다양한 실증적 분석에도 불구하고 원조와 경제성장간 관계, 또는 원조가 경제성장에 대한 미친 영향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원조와 경제성장 관계가 매우 복잡 다양할 뿐만 아니라 원조의 성장에 대한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 조건들이 있기 때문임
- 경제성장에 있어서 각 수원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증적 분석을 통해 명확한 관계를 규명하기는 쉽지 않음

2) 본 절은 맹준호의 “원조와 성장 논의에 관한 재고”(2012)를 요약 발췌한 것임



## □ 물적자본 축적과 성장 중심의 1세대 실증적 분석(1950~1970년대)

- 1세대(1950~70년대)의 초기 분석들은 해로드-도마(Harrod-Domar) 모델이나 이 모델의 연장선상에 있는 솔로우-스완(Solow-Swan) 모델과 같이 개발도상국의 성장단계에 따른 단순한 분석임
- 이 모델의 근거에는 자본투자에 의한 성장을 단순한 선형관계(linear relationship)로 규정하고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원조가 필요한지를 투입과 산출에 근거해서 분석한 것임
  - 이러한 모형에 근거한 실증적 분석은 개발원조는 외환차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저축과 투자를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성장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견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 이 시기의 분석은 Solow의 생산성 논의를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고 단순히 물적자본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함
  - 즉, 이 시기의 실증분석은 원조를 통해 사회간접자본과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물적자본이 증대되고 또한 이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이 증대되어 원조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 가설을 바탕으로 분석함
- 단순한 성장모형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원조가 개발도상국의 국내 저축을 증가시키는 경향은 있으나, 유입된 원조자금이 반드시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는 명확한 결론은 도출하기 어렵다는 결과들도 존재함
  -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인 국내 축적 자본의 한 요소로서 ODA를 성장에 대해 간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도마(Domar, 1946)나 로스토우(Rostow, 1956)의 연구가 있음
  - 직접적인 ODA 효과를 성장모델로 분석한 연구는 파나넥(Papanek, 1972)이 최초였으며, 이어 굴라티(Gulati, 1978) 등이 성장모델을 통한 ODA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으나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 함

## □ Dual Gap Theory에 근거한 2세대 실증적 분석(1980~1990년대)

- 1980~90년대 초반의 2세대 연구들(Mosley et al., 1987; Boone, 1994 등)은 1세대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개발도상국의 인구, 경제규모, 공여국-수원국 간 전략적 관계들을 설명변수로 활용
- 2세대 연구들은 1세대 연구에서 초점을 두었던 자본축적 이외에 개발도상국에 유입된 원조자금이 수출과 소득의 격차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중격차(Dual Gap: 외환격차, 재정격차) 모델을 제시
  - 개발도상국이 투자시 필요한 자본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외환이 필요하고 수출을 통한 외환소득이 없는 개도국에 원조자금이 외환을 제공함으로써 투자 및 경제개발·성장에 기여
- 이들 분석에서도 수원국의 특성 및 통제변수의 차이로 원조-성장 간 관계 규명에 있어 납득할만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는 못함
  - 다울링과 히먼즈(Dowling and Hiemenz, 1983), 모슬레이(Mosley, 1980) 등의 학자들이 성장모델에서 ODA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고 분석
    - 다만, 모슬리(Mosley, 1980)는 그의 연구에서 원조-성장 간 상관관계 규명을 위한 분석 표본을 최빈국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원조가 최빈국의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statistically significant) 결과가 있다는 논거 제시
  - 굽타 및 이슬람(Gupta and Islam, 1983), 레비(Levy, 1988) 등이 ODA가 성장에 긍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
  - 썩(Singh, 1985), 모슬레이 외(Mosley et al, 1987) 그리고 분느(Boone, 1994, 1996) 등은 성장모델에서 ODA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음
  - 이처럼 ODA의 효과는 표본의 기간과 표본대상국 수, 통제변수 등을 다르게 할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반된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그동안 ODA 효과성에 대한 결론이 학자마다 다르게 나타남게 됨

## □ 수원국의 개발환경을 중시한 3세대 실증적 분석(1990~2000년대)

- 1990~2000년대 중반의 3세대 연구들은 보다 진일보한 계량경제학적 분석 방법들을 동원하여 원조-성장 간 논의의 새로운 지평을 확대함
  - 1998년에 발간된 세계은행 보고서가 개발원조의 거시경제적 효과성 논의의 시발점이 됨
- 이들은 개발원조가 수원국의 성장에 ‘평균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수원국의 개발환경이 건전할 때’라는 조건 하에서는 원조효과가 긍정적일 수 있다고 분석결과를 보임
  - ODA 효과성이 특정한 조건(conditional), 즉 수원국의 제도수준(institutional quality) 등에 따라 ODA의 효과성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결론
  - 재정적자가 많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낮으며, 보다 개방적인 경제 환경을 갖춘 수원국인 경우(Burnside and Dollar, 2000 등) 원조가 성장에 기여한다고 결론
  - 2000년 이후에 정교한 통계기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들에서는 대체적으로 ODA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주류를 형성함
- 한편 개발원조가 수원국의 개발환경과는 무관하며 원조가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원조-성장 간의 관계가 항상 정(正)의 관계를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결과도 도출됨
  - 한센과 타프(Hansen and Tarp, 2000, 2001), 렌싱크와 화이트(Lensink and White, 2001), 달가드 외(Dalgaard et al., 2004), 클레멘스 외(Clemens et al., 2004) 등의 학자들은, 표본기간을 확장하여 분석하면 ODA가 경제 성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번사이드와 달러(Burnside and Dollar)가 주장한 것과는 달리 제도수준에 따라 ODA의 효과성이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고 주장

-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일국을 대상으로 대외개발원조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 일국 모형이 가지는 한계, 즉 베트남의 특수성은 있으나 원조를 통해 성공한 국가로서 분석 대상으로 의미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유무상원조별 차이를 분석하고, 특히 원조에 따른 파생적 효과 및 인적자본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함

# III

## 베트남 대외원조 수원과 경제성장

### 1. 베트남 경제개혁과 대외원조 수원 정책

#### 가. 베트남의 경제개혁 배경 및 내용

##### □ 경제개혁의 배경

- 1980년대 중반까지 베트남 경제는 전형적인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로 시장 부재에 따른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 성장에 대한 유인체계 부족으로 생산성 저하 및 심각한 공급 부족 상황이 전개됨
  - 베트남 경제는 기본적으로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통해 집단농장 및 국영기업을 주된 생산활동 단위로 하여 운영됨
  - 농업부문이 전체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였으며, 공업부문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베트남 경제는 농업 중심의 개발도상국형 구조를 보임
  - 1979년 경제적 인센티브를 도입한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을 실시하였으나 초인플레이션, 재정적자 심화 등이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1983~1985년간 다시 자유시장을 제한하고 사적경제활동을 억제함
    - 이 과정에서 유통과 분배를 재통제하고, 남부 농업집단화를 재강화하는 등 통제경제를 다시 강화함
  - 특히, 1985년에는 물가, 임금, 환율을 재조정하는 화폐개혁을 실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1985년에 152%, 1986년에 587% 라는 기록적인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전면적인 경제개혁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음

-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유일한 원조 국가였던 구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추진하면서 베트남에 대한 원조를 삭감하고 교역도 중단됨에 따라 베트남은 대내적, 대외적으로 정치·경제적 위기가 고조됨
- 베트남은 1973년부터 국경분쟁이 발생하고 베트남내 화교세력 축출 등으로 중·월 분쟁이 표면화되었으며, 1979년 이후 중국의 敎訓戰 이후 중국과 적대관계로 전환됨에 따라 구소련의 절대적 지원하에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시켜왔음
- 1980년대 중반 이후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코메콘 체제가 와해됨에 따라 베트남의 구소련 및 동구권에 대한 경제의존정책은 불가피하게 됨

#### □ 도이머이(Doi Moi, 刷新) 경제개혁 실시

- 심각한 경제난으로 베트남 정부는 새로운 경제정책 노선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인 바로 시장경제의 활성화, 경제의 자유화와 개방화를 표방한 ‘도이머이’ 노선의 채택임
- 베트남 정부는 그 동안의 정책적 실패와 국내 경제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영향을 받아 1986년 제6차 당대회에서 도이머이 노선을 채택하게 됨
- 도이머이 경제개혁은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 ① 국가의 거시적 경제조정을 전제로 시장경제원리를 적극 도입함
  - ② 산업정책과 경제개발전략 방향: 농업의 발전, 소비재 생산확대 및 수출 품의 개발과 품질향상을 실현하는데 적합하도록 생산 및 투자구조 재조정에 초점을 둠
  - ③ 국영부문의 주도적 역할을 전제로 국영기업, 집단기업, 사기업이 공존하는 다부문경제체제 구축을 목표로 함
  - ④ 외자유치 및 교역기반 확대를 위해 개방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대외지향적 산업구조로 전환

○ 도이머이 1기(1986~1991년)의 주요 추진 정책

- 농업집단화 사실상 포기: 생산청부계약의 대상을 작업반에서 개별농가로 전환, 평균주의적 분배를 능력주의 배분으로 변경
- 국영기업관리: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는 생산·경영계획을 기업에 완전히 위임, 기업과 정부간에는 계약에 의거한 매매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에 대한 정부의 물자, 원자재 공급 부족분은 기업이 시장에서 구입
- 기업의 자주권 부여: 기업의 자산을 부분적으로 매매·임대할 수 있고, 노동력의 배치전환, 임금지불 등에서 결정권을 가짐, 임금상환 폐지, 생산 투자, 신규투자 역시 기업이 결정
- 금융기관 독립: 금융기관은 중앙은행과 기타 은행으로 분리, 상업은행 업무는 농업개발은행, 상공업은행을 신설하여 담당하도록 함
- 금융시장 도입: 기업의 투자자금은 재정이 아닌 은행융자로 조달하도록함, 금융기관도 독립채산제가 도입되어 저축 모집과 융자업무 실시
- 배급제도 완전폐지 : 1989년 제 6기 6차 전원회의에서 결정

○ 도이머이 2기(1992~2005년)의 주요 추진 정책

- 1996년 제 8차 당대회에서 공업화·근대화를 목표로 “2020년까지 베트남을 공업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분투”할 것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경제개발, 시장경제화를 추진
- 국영기업 민영화(국영기업법 제정): 국영기업을 국민경제 중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사업에 한정하고 다른 산업은 민간기업에 위임, 국영기업 경영을 개인과 민간법인에 일정기간 청부
- 증권거래서 설립: 호치민(2000년), 하노이(2005년)에 증권거래소를 설립 하는 등 금융개방 추진
- 토지의 실질적 사유화: 농지임대 50년으로 확대

○ 도이머이 3기(2006년 이후)의 주요 추진 정책

- 2006년 제 10차 전당대회에서 시장경제체제의 확대 지속, 부정부패 척결 강화 등 당의 경제개발에 대한 강한의지를 재확인하고, WTO 가입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및 차별을 제거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외자유치에 나섬
- WTO 가입 등 개방정책 확대 : 2007년 WTO 가입으로 베트남의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을 세계에 확인시키고, 사회·경제 전반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환경에 대한 획기적 개선을 지향함
  - 또한, 미국으로부터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대외경제적 지위를 제고하고, 수출주도의 경제성장 발판을 마련함

〈표 III-1〉 도이머이 정책 추진 이후 주요 기간별 경제개혁 추진 내용

시기구분	주요정책	성과 및 문제점
다부문 경제체제 수립기(도이머이 1단계, 1986~199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 소비재, 수출 육성</li> <li>• 대외개방 정책</li> <li>• 농업개혁</li> <li>• 외국인투자유치 촉진</li> <li>• 기업의 독립성 부여</li> <li>• 금융기관 분리 및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증산, 쌀수출</li> <li>• 다부문경제체제 수립</li> <li>• 실업증가</li> </ul>
시장경제체제 준비기(도이머이 2단계, 1992~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영기업 민영화</li> <li>• 강력한 통화관리</li> <li>• 은행간 외환시장(1994)</li> <li>• 공업화, 기간산업 육성</li> <li>• 국영기업법 제정</li> <li>• 증권거래소 설립 (호치민 2000, 하노이 2005)</li> <li>• 금융 및 재정 개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투자 활기</li> <li>• 미국 및 국제금융기관 엠바고 해제</li> <li>• 미국과 국교 정상화(1995)</li> <li>• WTO 가입 신청(1995)</li> <li>• ASEAN 가입(1995)</li> <li>• 미국과 무역정상화(2001)</li> </ul>
개방경제체제 확립기(도이머이 3단계, 2006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투자법, 기업법 제정</li> <li>• 국영기업 개혁 본격화</li> <li>• WTO 양허안 이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 가입(2007)</li> <li>• 미국으로부터 PNTR 지위 획득(2006)</li> <li>• 최초의 민간은행 상장(2006)</li> </ul>

자료: 손승호(2008)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



- 신규투자법 제정(2006년): 외국인투자법과 내국인투자법을 폐지하고 신규로 국내외 기업에 모두 적용되는 단일투자법을 제정함으로써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을 제거함
  - 베트남은 1987년 외국인투자법을 공포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였으나, 국내투자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
  - 과거 외국인투자 금지 대상이었던 유통업 및 무역업에 규제도 완화
- 기업법 제정(2007년):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기업법을 도입하여, 기존 단독, 합작, 경영협력사업 등의 기업형태를 유한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개인회사 등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나. 베트남의 수원 정책<sup>3)</sup>

- 베트남은 경제개혁을 시도하면서 부족한 투자자원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외개발원조 자금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에 노력
  - 베트남은 도이머이 경제개혁을 통해 적극적인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며 초기 부족한 개발투자자금 확보의 필요성이 부각됨
- 특히, 원조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자국의 중장기 경제성장 목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조 수원 전략을 수립함
  - 이러한 적극적인 원조수원 전략으로 국제 원조사회에서 원조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원조를 통해 경제개발에 성공한 사례로 국가로 인정받고 있음
- 최근에는 이러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국제원조과제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3) 본 절은 장형훈의 “베트남 ODA 수용정책의 제도적 성과와 평가”(2011)를 요약 발췌한 것임

## 1) 개혁개방정책 도입 후 對서방 국교정상화 시기(1986년~1992년)

### □ 서방국교 정상화를 통해 외자도입 및 원조를 위한 대외협력관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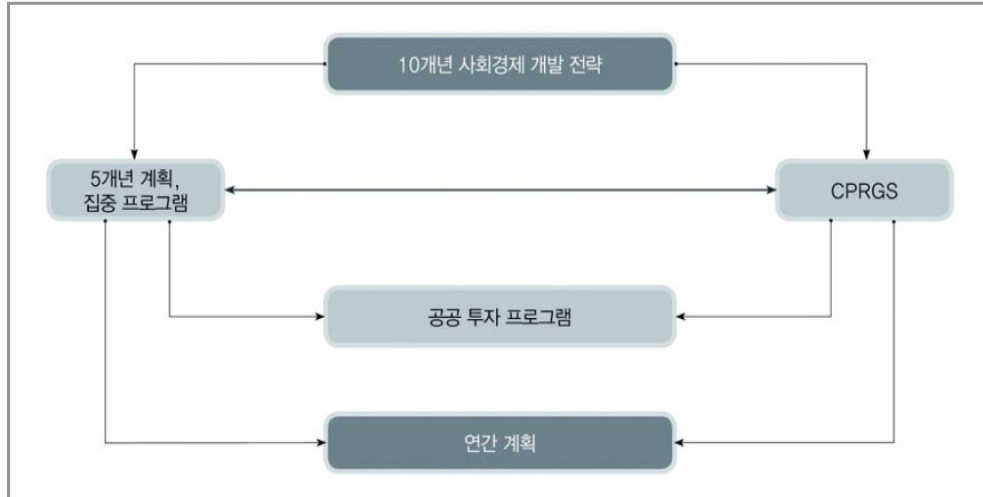
- 도이모이 개혁개방정책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국가경제의 개혁과 자유화 (Reform and Liberalization of the National Economy)로서, 이는 필연적으로 베트남의 대외정책에 결정적인 변화를 초래
- 특히, 베트남은 외국자본 유입을 목적으로 국제적, 지역간 및 양자간 협력 관계 구축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
  - 1988년 5월 정치국결정 제13호로 대외관계의 다양화(diversification) 및 다변화(multilateralization)를 정책목표로 수립
  - 이에 기초하여 1991년 제7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베트남은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와 친구’라고 선포하면서 3대 기본목표를 선언
  - 베트남 정부는 그 3대 기본목표 중 하나로 ‘해외직접투자 및 ODA 유치를 포함 대외경제활동 강화’를 포함시킴
-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주의에 기초한 다분야 시장경제원칙을 제정하는 등 개혁개방정책이 절정에 이르면서 세계 각국의 다자 및 양자원조 기관이 베트남에 지원을 시작하게 됨
  - 1992년 파리에서 베트남 원조공여국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서방국가의 원조대상국으로서 베트남이 무대에 등장하게 됨

## 2) 對서방 국교정상화 후 원조효과성 제고 시기(1993년~2006년)

### □ 국제개발원조 기구와의 협의를 통한 경제개발계획 수립으로 원조의 개발 효과성 제고 노력

- 베트남은 2001년 사회경제개발전략 10개년 계획(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2001~2010; SEDS)을 마련하고 이를 가지고 IMF, World Bank와 차관지원 협의를 함

〈그림 III-1〉 빈곤감축전략과 경제개발계획의 상호관계



자료: 장영훈(2011)

- SEDS의 기본 전략으로는 첫째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경제체제 수립, 둘째 거시경제 균형유지, 셋째 빈곤층을 위한 보건 및 교육여건 향상 등 임
- SEDS의 제1차 실행계획으로 2001년 ‘사회-경제개발계획(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01~2005; SEDP)’을 마련하여 경제성장과 산업화, 현대화 등 양적 성장에 중점을 둬
- 2005년 제2차 SEDS 실행계획으로 발표된 SEDP 2006~2010에서는 지속 가능개발과 양적, 질적 성장의 균형 달성을 목표로 함
- 2002년에는 SEDS의 부문별 실행방안인 ‘포괄적 빈곤감소성장전략 (Comprehensive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Strategy: CPRGS)’을 채택

□ 수원과정에서 높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개발원조 정책 주도

- 파리선언에 입각하여 주체적인 하노이 선언(Hanoi Core Statement on Aid Effectiveness) 통해 개발목표 설정

- 하노이 선언은 파리선언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파리선언의 12개 개발목표 외에 환경·사회분야 개발목표 2개를 추가하여 총 14개 개발목표를 설정함
- 하노이 선언 등에 제시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ODA 기본법을 제정함
  - 하노이선언 등에 제시된 정책목표달성을 위해 ODA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하여온 법령 17호(Decree 17 on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폐지하고 새로운 ‘ODA 관리 및 운용 규율에 관한 법령 131호(Decree 131 on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제정
  - 새로운 ODA 기본법의 특징은 첫째, 그간 중앙정부에 집중된 ODA 사업 선정·관리·시행 권한을 지방정부 등 실질적인 사업주체(Project Owner)에 이양하여 분권화이며,
  - 둘째는 ODA 관리부처인 기획투자부(MPI), 재무부(MOF), 중앙은행 (State Bank of Vietnam) 및 총리실간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여 ODA 관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 셋째, ODA 사업시행을 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하는 기능을 도입하는 것임
- SEDS나 SEDP가 선언적인 정책문서로서 구체적이지 않아서, 각국 ODA의 정책조화를 위한 기본틀 역할을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를 통해 베트남이 개발과정에서 높은 주인의식을 반영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

### 3) 원조효과성 선도 시기 (2006년~현재)

#### □ 원조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원조 프로젝트의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강화

- 2007년에 ODA관련 건설, 투자, 공공재정관리 등 분야의 법률시스템들을 대폭 개정하여 ODA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 기본제도

(Framework for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ODA Programs and Projects in 2006–2010 Period)'를 수립

- 이를 통해 대표적인 개발재원인 ODA를 원조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원조 프로젝트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원조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베트남 내 대표적 원조그룹인 6 Banks 그룹과 2007년 공동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를 통해 얻어진 그간 ODA 사업시행 및 관리 과정에서의 교훈 등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 및 6 Banks<sup>4)</sup> 공동시행과제(Joint Action Plan; JAP) 9개를 선정하여 이를 2008년 기획투자부령 제883호로 법규정화

□ 원조 관련 국제적 논의의 적극적 수용을 통한 원조 선진화 추진

- 아크라행동강령 (Accra Agenda for Action; AAA)으로 선언된 회의성과를 현지화
  - 이해관계자(Actor) 참여폭 확대 및 다양화, 과제별 실행절차·일정 등을 내용으로 실행계획(Implementation Framework)을 수립·채택
  - 정책자문외에 기술적 실무과제까지 담당하면서 그 기능적 한계에 부딪친 기존의 PGAE<sup>5)</sup>를 재편하여 2010년 1월 원조효과성포럼(Aid Effectiveness Forum; AEF)을 발족
    - AEF는 AAA의 베트남 현지화, HLF4<sup>6)</sup>에서 파리선언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기 위한 개발의제 제시 등을 주요 아젠다로 설정

4) 6 Banks는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독일 부흥개발 금고(KfW), 프랑스 개발기구(AFD) 및 한국수출입은행으로 구성된 베트남내 원조협의체로 현재 대 베트남 전체 원조액의 약 85% 이상을 6 Banks가 지원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사실상 국제원사회의 대표기능을 수행중(장영훈, 2011)

5) 원조효과성 파트너그룹(Partnership Group on Aid Effectiveness; PGAE)

6) HLF4(The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는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의

## 2. 베트남 대외원조 수원과 경제성장

### 가. 베트남의 원조 수원 추이

#### □ 국제사회의 베트남에 대한 개발원조가 본격화된 것은 1993년 이후부터임

- 베트남이 1986년부터 경제개혁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서구사회와 관계가 재구축되며 원조가 본격화 된 것은 1992년 헌법개정을 통해 시장경제원칙을 제정하는 등 개혁개방정책이 확고하게 설립된 이후임
- 1992년 파리에서 베트남 원조공여국회의가 개최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세계 각국의 다자 및 양자원조기관이 베트남에 원조지원을 시작함
  - 1993년 이전까지는 스웨덴 및 UNDP의 일부 지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적으로 구소련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던 상황이었음

#### □ 베트남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원조는 1993년 이후 2010까지 연평균 15.5%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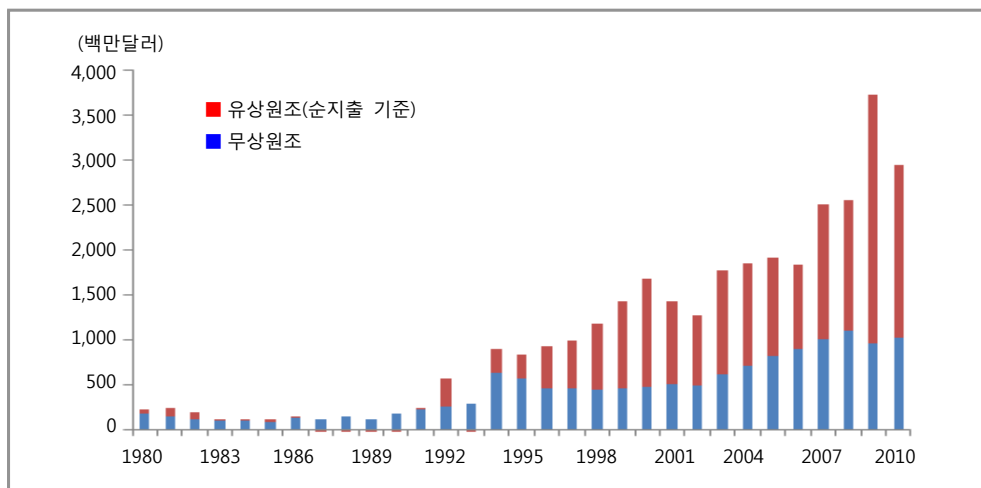
- 베트남 수원규모는 1993년 2억 5,000만달러 규모였으나 2009년에는 37억 달러 규모로 확대된 이후 2010년도 29억달러로 감소함
  - 1993년 이전까지 수원규모는 연간 1~2억달러 수준에 불과하였음

#### □ 국제사회의 개발원조가 시작되면서 유상원조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됨

- 1993년 이전까지 원조는 대부분 무상원조로 이루어져 왔으나, 베트남의 경제개혁이 본격화되고, 투자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유상원조 중심으로 원조가 이루어짐
  - 유상원조의 비약적인 성장은 파리 베트남 원조공여국 회의를 통해 수원국으로서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고 또한 상황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받게 됨에 따라 선진국의 유상원조가 가능하게 됨

- 또한, 도이모이 2기가 시작되면서 베트남 정부가 공업화·근대화 목적하에 본격적으로 경제개발 및 시장경제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경제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됨
- 1980년부터 1992년까지 무상원조의 비율은 73.2%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1986~91년까지는 90% 이상이 무상원조로 이루어짐
- 무상원조의 규모는 1980년 1억 8,800만달러 수준에서 2010년 10억 3,000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연평균 5.8%로 유상원조 증가속도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그 비중이 낮아지게 됨
  - 1993년 이후 무상원조의 비중은 36% 수준으로 하락함
- 무상원조 중에서는 기술협력 분야의 비중이 41% 수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대외원조가 본격화된 1993년부터 유상원조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1993~2010년간 총원조중 유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64%를 기록하고 있음
- 1980년대 유상원조 규모는 연간 2,600만달러 수준이었으며, 특히 1988년의 경우에는 140만달러 수준을 기록하는 등 매우 미약한 상황이었음

〈그림 Ⅲ-2〉 베트남의 대외원조 수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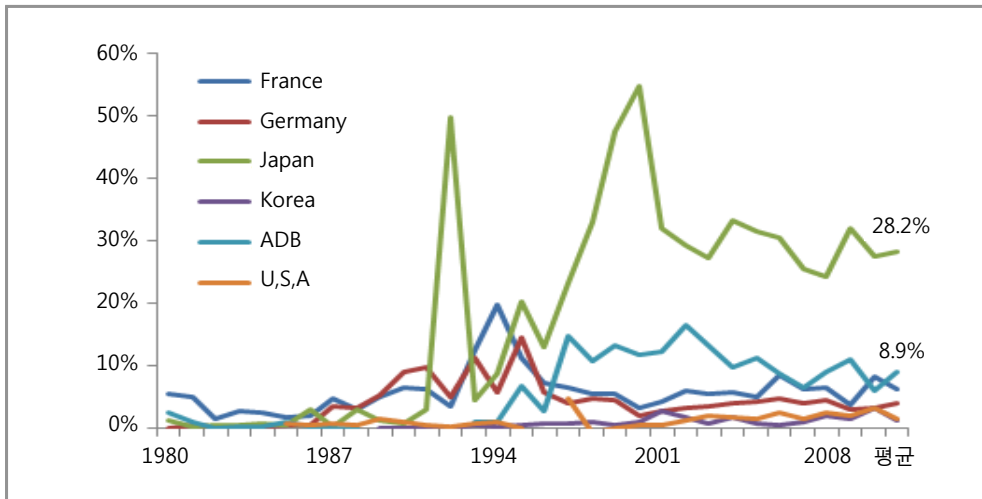
자료: OECD DAC

- 유상원조는 1993년 4,000억달러 수준이었으나 이후 연평균 27%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2010년에는 24억 6,400억달러 수준으로 증가함
- 2009년에 32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소폭 하락한 상황임

□ 공여국별로 보면, 일본이 1980년 이후 총원조의 28.3%를 차지하여 가장 활발하게 베트남에 대한 원조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일본의 유상원조 중심의 개발원조자금 공급을 전략적으로 취해왔기 때문임
- 또한 동남아시아에 대한 과거 경제적 유대성과 전략적 해외진출을 위한 목적으로 일본이 전략적으로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다음으로 국제기구인 ADB(Asian Development Bank)가 8.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ADB는 동남아시아의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베트남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게 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III-3〉 주요국별 베트남 원조 비중 추이



자료: OECD DAC



- 국제기구 이외 일본 다음으로 베트남에 대한 원조에 적극적인 나라는 프랑스와 독일인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와 독일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2%, 4.1%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 미국의 경우 1.5% 수준으로 매우 부진한 상황인데 이는 미국의 원조가 유상방식의 개발원조보다는 무상원조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특히, 외교적, 정치적 목적의 원조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에 있어서 베트남이 전략적 중요성이 높지 않은 것도 부진한 요인 중의 하나임
  - 한국의 경우 베트남에 대한 원조가 1989년부터 시작되어 총원조의 1.3%만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0년도의 경우 총원조의 3.3% 수준을 기록하여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베트남에 대한 원조별 분야별 추이를 보면 경제인프라에 대한 원조가 2005년 이후 총원조중 42% 수준을 차지하며 원조를 주도하고 있음**
- 경제인프라에 대한 원조 중에서는 교통 및 통신 인프라에 원조가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개발투자에 대한 원조가 21%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경제인프라에 대한 원조비중이 높은 것은 경제인프라 사업 규모가 크고, 베트남 정부의 경제개발 목표에 따른 수요가 높기 때문임
  - 사회인프라에 대한 원조는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교육에 대한 원조가 23%, 상하수도 설비에 대한 원조가 40%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사회인프라에 대한 원조도 대부분 상하수도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임
    -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에 대한 원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교육에 대한 원조의 건당 지원규모가 크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 베트남 정부가 향후 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보다는 단기적인 산업근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생산설비 관련 원조의 경우 총 8.4%를 유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
  - 이는 생산설비의 경우 상업성이 높은 경우가 많아 원조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
  - 또한 이 분야에 대한 필요자금을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해 해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생산설비 원조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업, 임업, 수산업 등 1차 산업으로 이는 베트남 경제가 아직 1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해당 산업의 상업성이 높지 않기 때문임
- 최근에 와서는 프로그램 원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 원조의 추세가 프로그램 원조에 대하여 비중을 높이고 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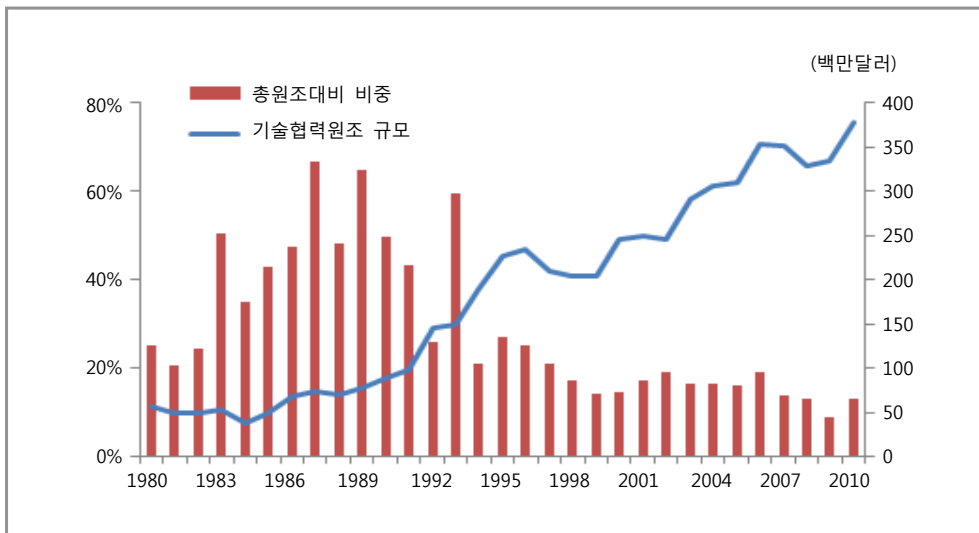
〈표 III-2〉 베트남 원조 분야별 비중 추이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사회인프라	22.3%	30.7%	32.5%	39.5%	31.8%	22.2%
교육	7.8%	10.0%	8.1%	6.2%	5.3%	6.0%
상하수도	3.7%	10.2%	8.3%	21.2%	18.0%	6.2%
경제인프라	46.6%	45.2%	44.8%	35.6%	35.6%	47.7%
교통 및 통신	42.4%	26.6%	32.4%	27.9%	26.2%	35.0%
에너지	3.0%	13.8%	11.4%	5.7%	7.8%	11.1%
생산설비	14.4%	6.3%	11.8%	3.6%	8.2%	7.7%
농수산 설비	6.7%	5.1%	8.3%	1.9%	1.7%	5.3%
산업설비	7.2%	0.9%	3.3%	1.0%	6.0%	2.1%
교역 및 관광 관련설비	0.5%	0.3%	0.2%	0.7%	0.5%	0.3%
인도적원조	0.4%	0.2%	0.4%	0.4%	0.2%	0.8%

자료: OECD DAC

- 한편 인도적 차원의 원조는 0.4%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 사회안정망 구축 등으로 인도적 차원 원조의 수요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임
- 한편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술협력 분야 원조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체 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있음
  - 기술협력 분야에 대한 원조규모는 1980년 5,700만달러 수준에서 2010년 3억 7,700만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총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말 60% 이상까지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이러한 하락은 기술협력의 방식이 교육훈련, 전문가 파견, 기술 자문 등으로 이루어져 건당 원조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
  - 그러나 베트남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술 협력을 통한 기술력 향상이 필요한 상황임

〈그림 Ⅲ-4〉 베트남 원조중 기술협력 원조 규모 및 비중 추이



자료: OECD DAC

## 나. 베트남 경제성장 성과

### 1) 경제성장 추이

□ 베트남 경제는 정부의 개혁·개방을 통한 적극적 경제개발과 원조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1986년 이후 연평균 7.1%의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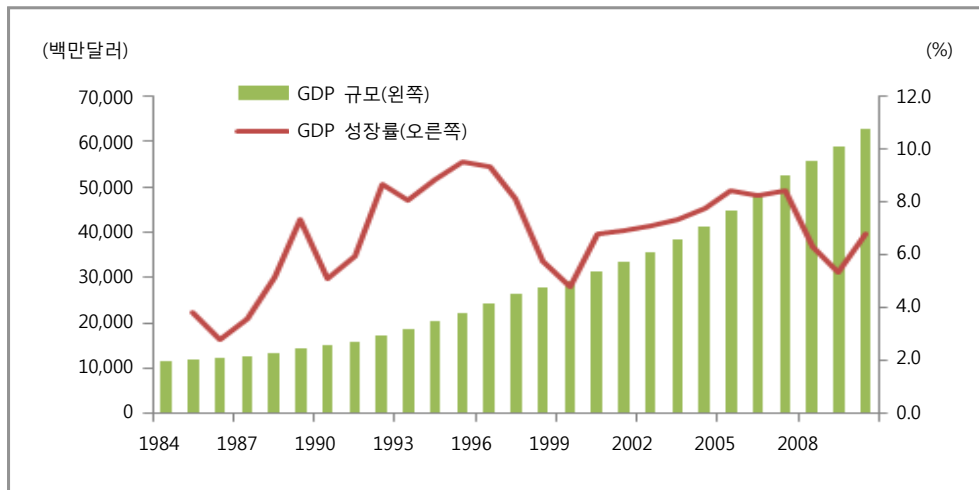
○ 베트남 경제규모는 1986년 120억달러 수준에서 2010년 628억달러 규모로 약 5배 이상 성장함(2000년 미달러화 기준)

○ 개혁초기인 1980년대말까지는 개혁·개방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4~5%대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 개혁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1990초중반년대 8~9%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이후 1990년대말 아시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5%대의 성장세를 보임

○ 2000년대 들어서는 전세계적 경제성장세에 영향으로 8%대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6%대로 성장률이 하락함

〈그림 III-5〉 베트남 GDP 규모 및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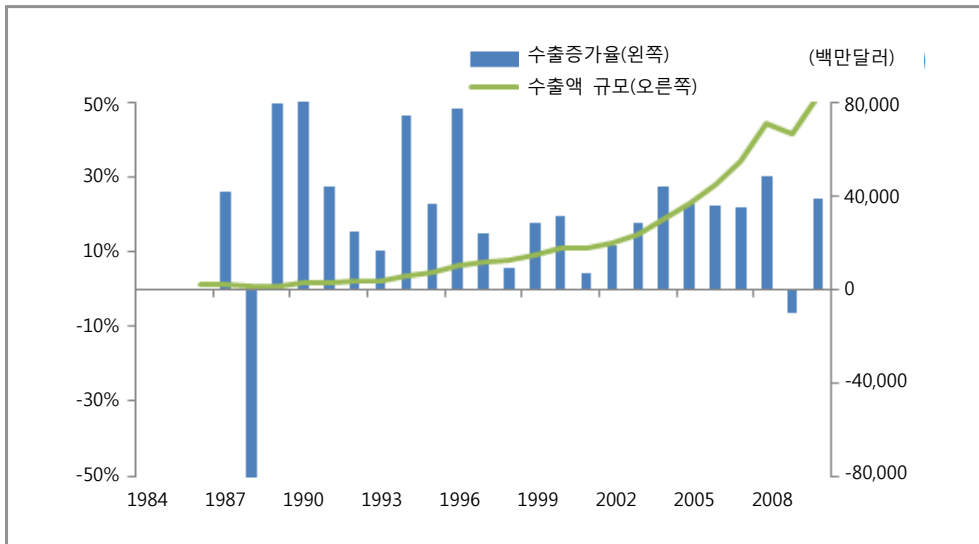
주: 2000년 미달러화 실질가격 기준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World Bank)

□ 경제개혁 이후 베트남의 고성장 과정에서 WTO 가입 등 경제개방을 통해 1차 산업 및 경공업 중심으로 수출이 급격하게 성장함

- 베트남의 수출은 1986년 17억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연평균 17.4%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여 2010년에는 825억달러 규모로 성장함
- 1990년대는 연평균 22.1%의 초고성장을 이루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어 연평균 17%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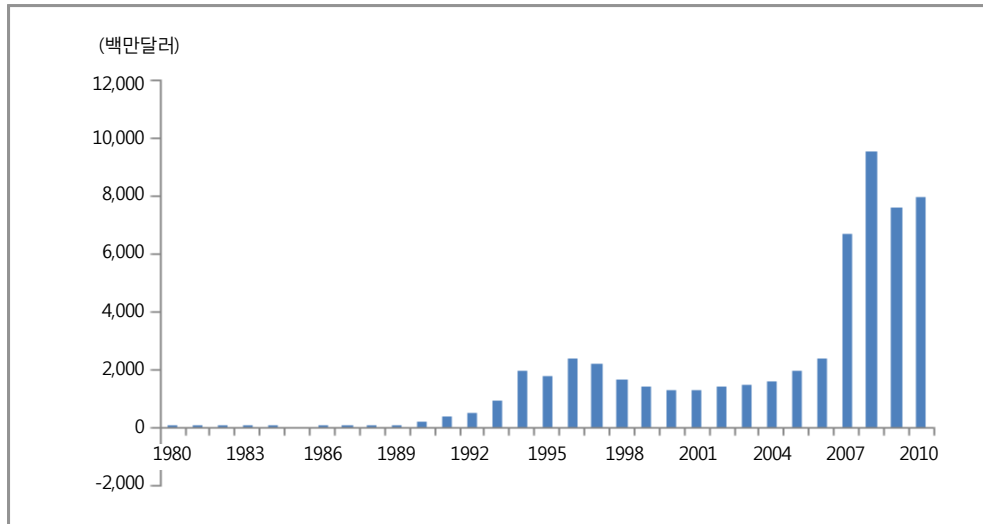
〈그림 III-6〉 베트남 수출증가 추이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World Bank)

- 베트남 정부는 도이모이 정책을 통해 기존의 중공업 우선정책을 농업 및 경공업 육성정책으로 전환하고 자급자족 경제체제를 탈피하여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수출이 농업 및 경공업 제품 중심으로 증가하게 됨
-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도입 정책 및 경제 인프라 형성 등 경제적 성장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도 증가함
-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0년 이후 연평균 21%의 성장세를 보임

〈그림 III-7〉 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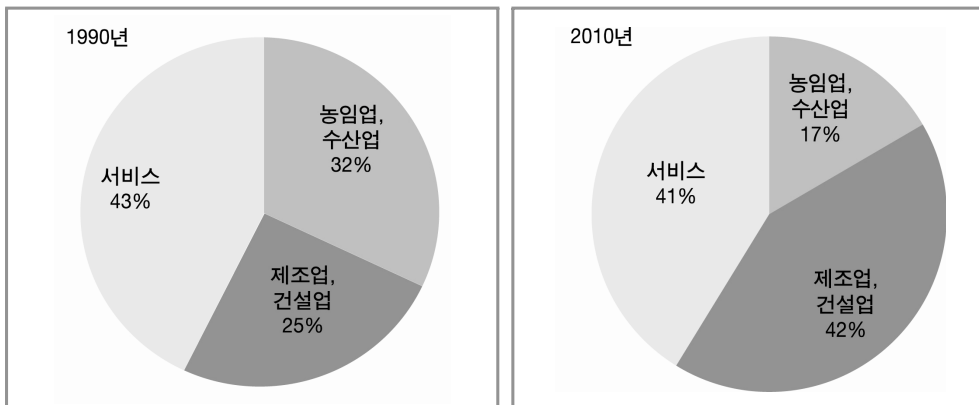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World Bank)

-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0년도부터 본격화되며 당해연도에 1억 8,000만달러가 유입된 이후 1997년까지 빠르게 성장하며 20억달러를 돌파 하였으나, 이후 아시아 외환위기로 2000년도까지 위축되는 양상을 보임
  - 1990년도 이전까지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모는 연간 1,000만달러 수준에 불과하였음
-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과 베트남 정부의 신투자법, 기업법 제정 등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에 힘입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2008년도에는 95억달러 수준을 돌파함
- 이러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는 베트남 정부의 외자유치 정책이 크게 작용 하였으나, 베트남 경제의 지속적 성장 및 체질개선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망한 투자처로 인식되었기 때문임
  -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에는 베트남에 대한 유상원조자금 지원이 이루어 지며 경제인프라가 형성되고 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안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된 것이 크게 기여함

- 베트남 경제의 성장에 따라 산업구성도 고도화되며 산업에서 제조업 및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
  - 1990년도에 제조업과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수준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그 비중이 42% 증가함
  - 제조업과 건설업은 20년간 연평균 10%의 성장세를 보인 반면 농림수산업의 경우 4%의 성장세를 보임
    - 한편 서비스업의 경우 연평균 7%의 성장세를 유지하며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43%에서 2010년 4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 아직 대부분 경공업이 차지하는 등 중화학공업의 발전은 더딘 상황임
    - 제조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음식료품 제조로 약 22%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로 산업생산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임

〈그림 Ⅲ-8〉 베트남 경제의 산업구조 변화



자료: 베트남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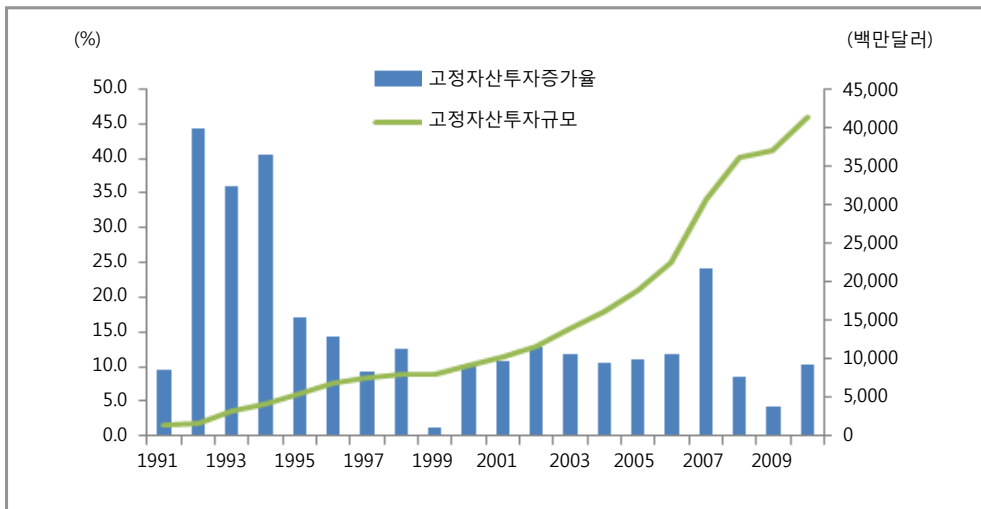
- 반면 국영기업의 비중은 2005년도 25% 수준에서 베트남 정부의 민영화 정책으로 2010년 19% 수준까지 낮아짐

## 2) 경제성장 요소별 개선 추이

### □ 경제개혁 이후 고정자본 투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경제성장의 기초인 자본축적이 이루어짐

- 베트남은 경제 개혁·개방 이후 적극적인 인프라 및 생산시설 투자를 함으로써 성장의 기반을 마련함
  - 베트남의 고장자본투자는 1991년 이후 20년간 연평균 19.3%의 성장세를 보이며 2010년에는 연간 413억달러가 투자됨
- 지속적인 고정자본투자의 증가로 베트남 경제의 자본스톡(Capital Stock)도 1990년대 연평균 10%의 성장세 보임

〈그림 III-9〉 베트남의 고정자본 투자 추이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World Bank)



□ 고정자본투자를 통해 안정적 경제성장의 기반인 경제인프라(교통, 통신, 전력 등)도 많이 확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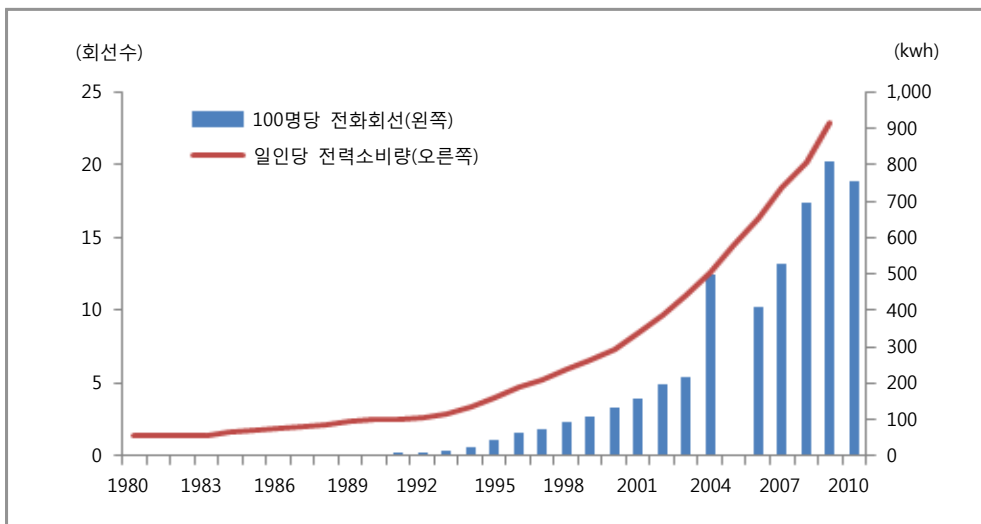
- 도로의 경우 1990년에 96,100Km에서 2007년에는 160,089Km로 17년간 1.7배가 증가하여 산업화의 기반을 다짐
- 통신시설의 경우에도 인구 100명당 전화회선이 1980년대 0.11회선에 불과하였던 것이 1990년말에는 28배 증가한 2.8회선으로 2009년에는 20회선으로 급증함
- 경제산업 활동의 기초가 되는 전력의 경우에도 전력공급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1인당 전력소비량이 1980년 55kwh 수준에서 30년간 연평균 10%의 성장세를 보이며 2009년에는 918kwh로 급증함

〈표 III-3〉 베트남의 도로연장 길이

연 도	1990	1995	1998	2004	2007
도로망 길이(km)	96,100	106,048	93,300	137,359	160,089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World Bank)

〈그림 III-10〉 베트남의 전화 회선수 및 일인당 전력소비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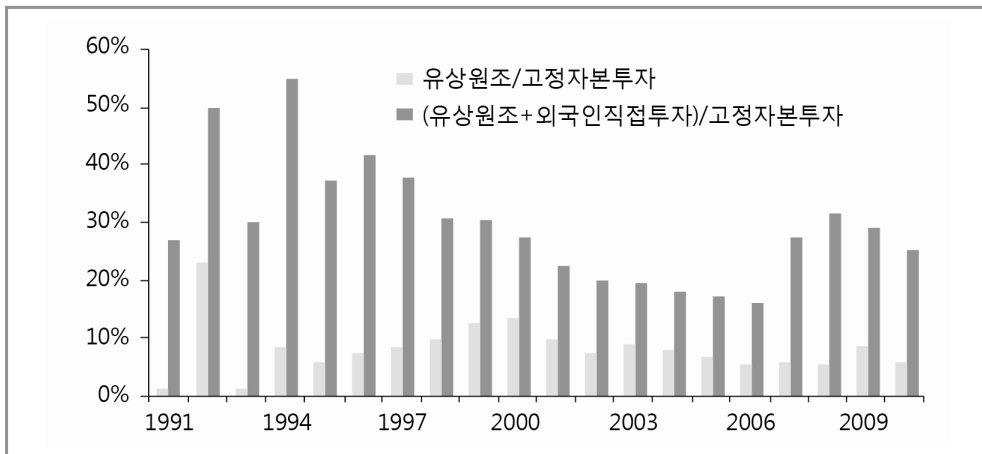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World Bank)

□ 베트남의 고정자본투자의 성장 및 자본스톡의 증가는 경제인프라에 투입된 유상원조자금과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이 크게 기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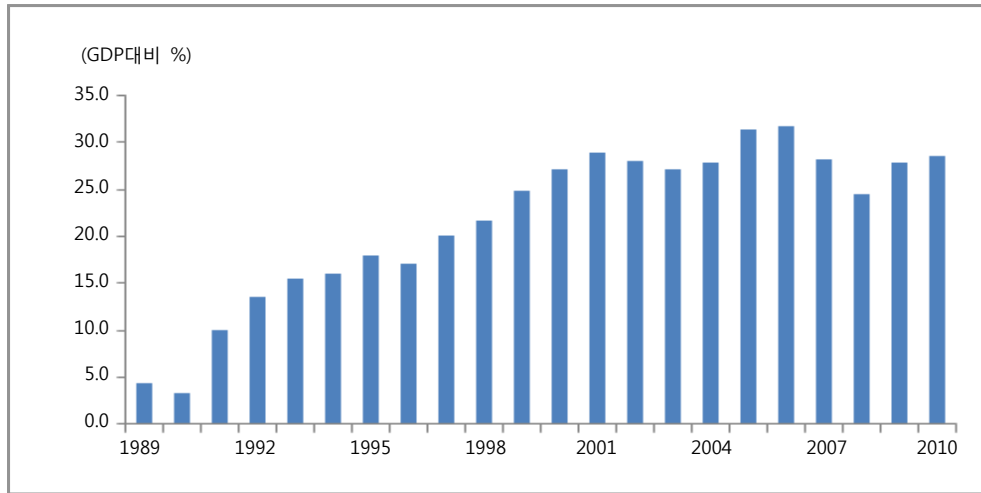
- 고정자본 형성에 크게 기여하는 유상원조의 고정자본투자대비 비중은 1991년 이후 7.3%를 차지하고 있음
- 대외원조 증가에 따른 경제인프라 개선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며 외국인 직접투자의 고정자본투자대비 비중이 19.2%를 기록하는 등 전체 대외자본 유입이 베트남 자본축적에 크게 기여함
  - 자본축적 초기엔 1990년대 초반에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총고정자본 형성에서 차지한 비중이 30% 수준을 유지함
  - 2000년대 초반 10% 대로 하락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은 신기업법 개정 등에 따른 외국인 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2007년 이후 20% 수준으로 상승함
- 유상원조와 외국인 직접투자 등 해외자본에 의한 투자는 총고정자본 투자의 26.5%를 차지함
  - 특히, 유상원조와 외국인 직접투자과 원조와의 상관관계가 0.85를 기록, 유상원조의 증가가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에 많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11〉 베트남의 고정자본투자대비 유상원조 및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 추이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World Bank), OECD D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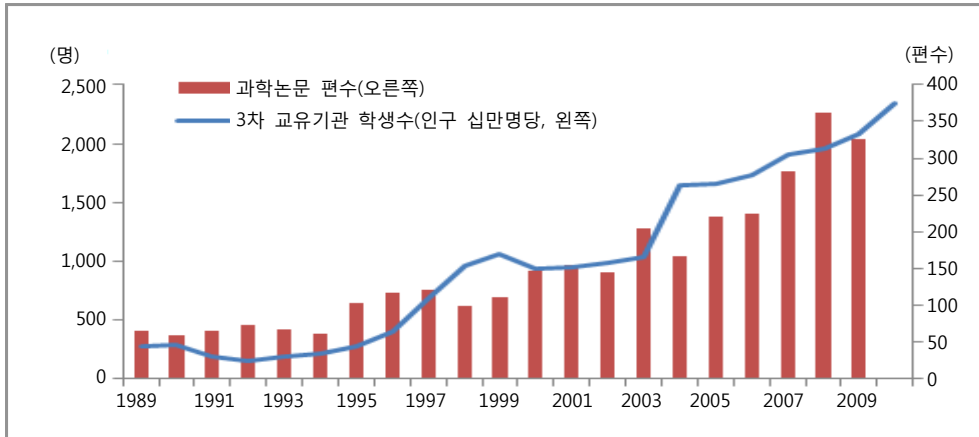
〈그림 III-12〉 베트남의 저축률(GDP대비 저축액) 추이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World Bank)

- 한편, 고정자본투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베트남 경제의 저축률의 경우에도 경제성장 및 소득증가가 이루어지면서 상승함
  - 1990년도 3.3%에 불과하였던 저축률(GDP대비 저축)은 2000년도 중반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2006년도에는 31.7%까지 상승함
  - 이후 베트남 경제규모의 확대 및 실질소득 증대 등에 따른 소비성향 증가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이러한 저축률의 상승을 통해 베트남 경제가 자력으로 경제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게 됨
- 베트남 경제의 성장과정에 경제인프라 뿐만 아니라 인적자본의 형성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베트남의 교육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학생수의 경우 1, 2차 교육기관의 학생수 뿐만 아니라 3차 교육기관의 학생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3차 교육기관의 인구 10만명당 학생수는 1990년 285명에서 2010년 2,339까지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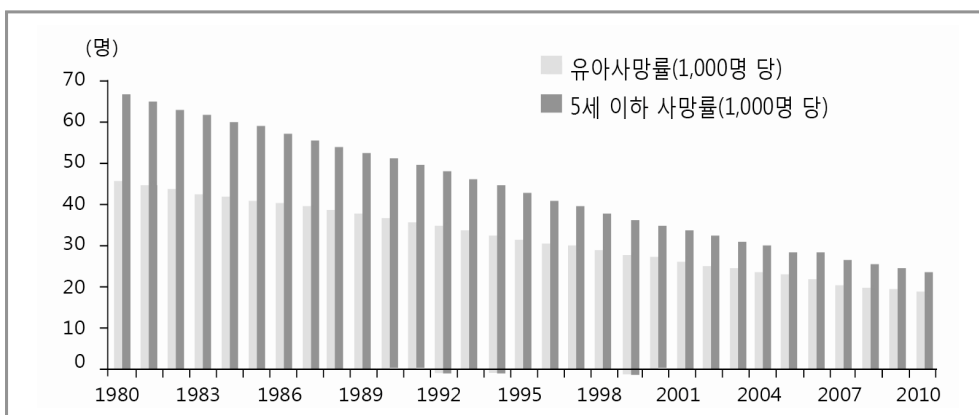
〈그림 III-13〉 베트남의 3차 교육기관 학생수 및 과학논문 편수 추이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World Bank)

- 또한 베트남의 교육의 질 및 과학기술력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연간 과학 논문 발행편수도 1990년 60개에서 2009년 연간 326개로 5배 이상 증가함
- 베트남 노동력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및 5세 이하 사망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베트남의 유아 사망률은 1980년 천명당 45명에서 2010년 18.6명으로 하락 하였으며, 5세 이하 사망률도 66.6명에서 23.3명으로 하락함

〈그림 III-14〉 베트남의 유아 및 5세 이하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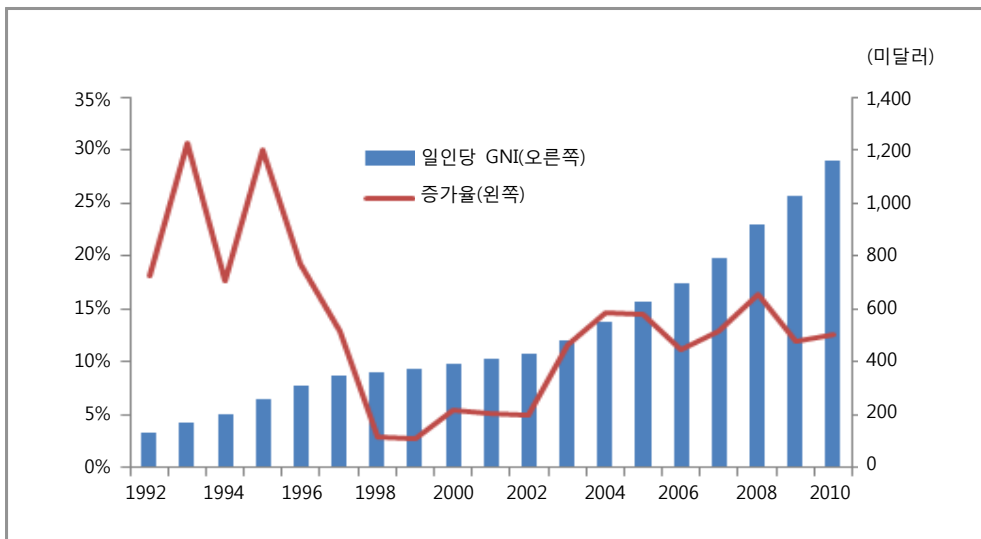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World Bank)

### 3) 빈곤 감축 개선 추이

□ 베트남 경제의 성장 및 경제·사회 인프라의 개선으로 1인당 GNI가 상승하며 빈곤 감축이 이루어짐

- 베트남의 1인당 GNI는 1992년 130달러였으나 이후 연평균 13%의 증가세를 보이며 2010년에는 1,160달러로 상승함

〈그림 III-15〉 베트남의 1인당 GNI 규모 및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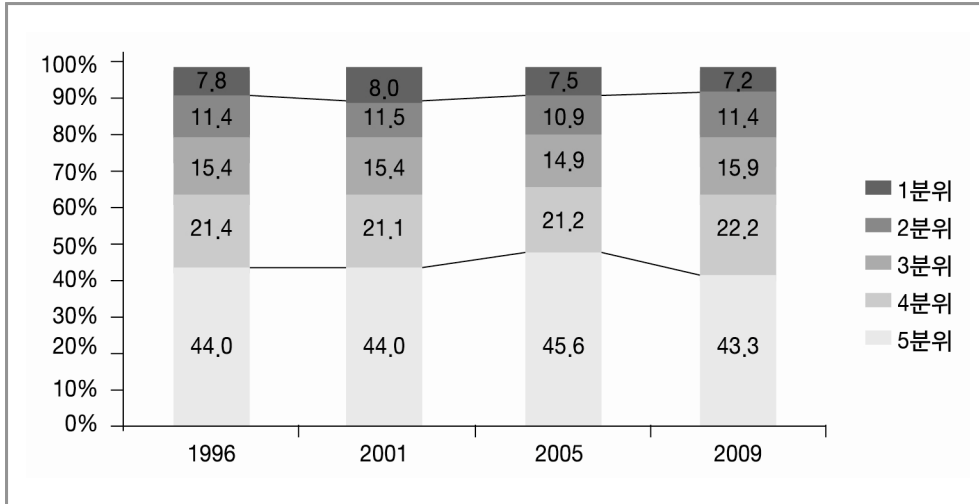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World Bank)

□ 베트남은 사회 전반적인 빈곤 감축뿐만 아니라 소득 분배도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소득에서 소득 1분위와 5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중간소득 계층인 2, 3, 4분위의 소득비중이 1996년 48.2%에서 2009년 49.5%로 증가함

그림 III-16) 베트남의 소득 분위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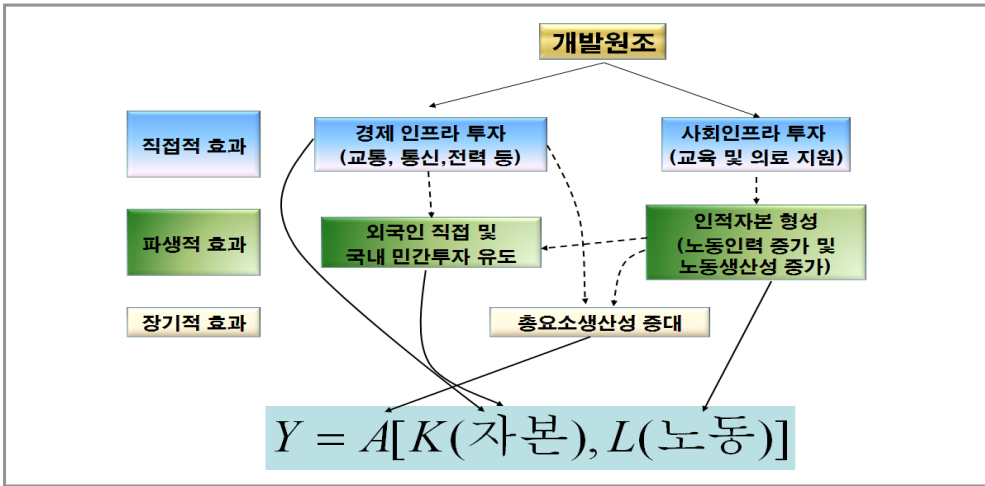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World Bank)

# IV 대외원조의 베트남 경제성장 기여 분석

- 대외원조는 수원국의 고정자본투자 증가 및 인적자본 형성에 대한 기여를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됨
  - 대외개발 원조는 경제인프라 및 사회인프라 투자를 통해 단기적으로 당해 연도의 고정자본 투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됨
    - 유상원조의 경우 경제인프라 중심으로 원조가 지원되며 무상원조 중심의 교육, 의료 등 사회인프라에 대한 지원은 교육시설 확충, 노동력 증가 등에 영향을 주어 인적자본 형성에 기여는 것이 일반적임
  - 대외원조를 통한 경제 및 사회 인프라의 개선은 외국인 직접투자 및 국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파생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추동하게 됨

〈그림 IV-1〉 대외개발원조의 수원국 경제성장 기여에 대한 개념도



- 이러한 대외개발원조의 생산요소에 대한 기여는 장기적으로 경제제도 등의 개선 등을 통해 경제성장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게 함
  - 경제 및 사회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경제전반에 걸친 생산성을 중요요소 생산성이라고 함
- 본 연구에서는 대외개발원조의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원조의 파생적 효과 및 장기적 효과를 고려하여 베트남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고자 함
  - 대외개발원조 총금액은 해당기에 직접적으로 GDP에 기여한다고 가정
  - 파생적 효과 분석을 위해 대외개발원조가 외국인 직접투자 및 국내 민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모형을 통해 분석함

〈표 IV-1〉 대외개발원조의 수원국 경제성장 기여도 분석의 방법론

		고정자본형성에 대한 기여	인적자본 형성에 대한 기여
단기적 효과	직접적 효과	대외원조액은 고정자본투자 등으로 직접적으로 해당연도 GDP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 (유상원조액 + 무상원조액)	
	파생적 효과	대외원조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친 영향 분석(계량분석을 통해 기여 원조 분야와 기여규모 추정) 대외원조가 민간투자에 미친 영향 분석(계량분석을 통해 기여 원조분야와 기여 규모 추정)	대외원조가 인적자본 형성에 미친 영향 분석(졸업생 증가률을 대리변수로 기여 원조분야와 기여규모 추정)
장기적 효과	고정자본투자, 인적자본형성 각각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장기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계량적 모형을 통해 분석)		
총효과	단기적 효과(대외원조에 따른 직접효과와 파행효과에 따른 총고정자본 증가액)+장기적 효과(대외원조에 따른 고정자본투자와 인적자본의 증가액이 경제성장에 대한 장기적 기여)을 계량모형을 바탕으로 추정함		
사용 데이터	자료원 : 원조 관련(OECD DAC통계), 베트남 경제관련 통계(World Development Indicator, World Bank) 통계자료 기준 : 2000년 베트남 동화 실질가격 기준		



- 인적자본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인적자본을 대표할 수 있는 졸업생수를 대리변수로 활용하여 계량분석을 함
- 대외원조가 경제성장에 미친 총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고정자본형성과 인적자본 형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계량분석 함

## 1. 대외개발 원조의 경제성장 기여도 계량 모형

### 가. 대외원조의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기여

#### 1) 국내 민간투자 증가에 대한 기여 분석

- 대외개발원조의 국내 민간투자 증가에 대한 기여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 민간투자 결정 모형을 식(7) 같이 설정함

$$DI_t = \alpha + \beta LODA_{t-1} + \gamma GODA_{t-1} + \delta Ra_{t-1} + \zeta TE_{t-1} + \eta GDP_{t-1} + \epsilon_t \quad (7)$$

*DI*: 국내민간투자  
(고정자본형성 - 외국인직접투자 - 유상원조)  
*LODA*: 유상원조  
*GODA*: 무상원조  
*Ra*: 철도선로 길이  
*TE*: 졸업생수 (1, 2, 3차 교육기관)  
*GDP*: 국민총생산

- 국내 민간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1) 경제 인프라 수준, 2) 사회 인프라 수준, 3) GDP 성장률, 4) 대외원조로 함
  - 국가 인프라 수준은 민간경제 주체가 투자결정시 중요한 투자의 효율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이므로 결정요인에 포함시켰으며, 본 모형에서는 인프라 수준을 대표하는 변수로 철도선로 길이로 함
  - 또한 사회인프라(교육수준)를 반영하는 변수로 1, 2, 3차 졸업생수를 사용함
  - 민간투자의 경기변동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전기의 경제성장률을 포함함

- 각각의 변수는 안정적 시계열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대비 증가율을 사용함
- 유상원조, 무상원조, 철도선로, 졸업생수 시차에 따른 영향력을 판단하여 종속변수와 가장 상관관계수가 높은 시차를 활용함

□ 분석결과 유상원조가 국내 민간투자에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무상원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함

- 모형분석 결과 전기의 유상원조가 1% 증가할 경우 국내 민간투자는 0.07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99%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전기 GDP 성장률의 경우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 변동에 따라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음
  -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다는 것은 전기 경제성장으로 과잉투자되었던 부분이 조정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경제인프라를 표현하는 철도선로의 경우는 계수가 마이너스(-)로 나왔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표 IV-2〉 국내민간투자 결정요인 분석 결과

	계 수	t값	P-Value (오류 확률)
전기의 유상원조 증가율	0.0782	5.75	0.0%
전기의 무상원조 증가율	0.3267	1.66	12.3%
전기의 철도길이 증가율	-0.1082	-0.15	88.5%
전기의 졸업생수 증가율	2.6093	1.37	19.7%
전기의 경제성장률	-1.6910	-0.35	73.1%
C	0.1271	0.38	71.1%

주: OLS 방식으로 추정했으며, R2는 0.766임

- 사회인프라의 경우 민간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크게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
- 따라서 국내 민간투자에 있어 유상원조가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타남

## 2) 외국인 직접투자 유도를 통한 기여

□ 대외개발원조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식(8)과 같은 외국인 직접투자 모형을 설정함

$$FDI_t = \alpha + \beta LODA_{t-2} + \gamma GODA_{t-4} + \delta Ra_{t-1} + \zeta TE_{t-2} + \eta GDP_{t-1} + \theta D_t + \epsilon_t$$

----- (8)

*FDI*: 외국인 직접투자  
*LODA*: 유상원조  
*GODA*: 무상원조  
*Ra*: 철도선로 길이  
*TE*: 졸업생수  
*GDP*: 국민총생산  
*D*: 2007년 신기업법 제정 더미

- 외국인 직접투자도 국내 민간투자 결정모형과 같이 1) 경제 인프라 수준, 2) 사회 인프라 수준, 3) GDP 성장률, 4) 대외원조로 함
- 결정요인 선별사유는 국내 민간투자 결정요인 설정과 동일하나, 외국인 직접투자 모형에서는 2007년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기업법 제정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모형에 더미변수로 포함시킴
- 본 모형에서도 안정적 시계열 확보를 위해 각 변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사용함
- 유상원조, 무상원조, 철도선로, 졸업생수 시차에 따른 영향력을 판단하여 종속변수와 가장 상관관계수가 높은 시차를 활용함
  - 시차분석 결과 외국인 투자의 경우 국내 민간투자보다 결정요인들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외국인 투자의 결정이 더 신중하고 의사결정이 빠르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분석결과 유상원조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 (+) 영향을 미치나 무상원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모형분석 결과 전기의 유상원조가 1% 증가할 외국인 직접투자가 0.04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95% 유의함을 보임

- 무상원조의 경우 1% 증가할 때, 0.058%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반면 전기의 철도선로 증가율 및 졸업생 증가율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음

- 전기의 GDP 증가율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더비변수로 포함시킨 2007년 신기업법의 제정은 확실하게 외국인 직접투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표 IV-3〉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결과

	계 수	t값	P-Value (오류 확률)
2기전의 유상원조 증가율	0.0433	2.41	3.7%
4기전의 무상원조 증가율	0.0585	0.30	76.7%
전기의 철도길이 증가율	-0.0749	-0.08	94.0%
2기전의 졸업생수 증가율	-2.4788	-1.26	23.7%
전기의 경제성장률	6.3806	1.22	25.1%
더비(신기업법 개정)	1.5426	4.80	0.1%
C	0.1271	0.38	71.1%

주: OLS 방식으로 추정했으며, R2는 0.828임

## 나. 대외원조의 인적자본 형성에 대한 기여

### □ 인적자본을 결정하는 모형은 식(9)와 같음

$$SE_t = \alpha + \beta LODA_{t-4} + \gamma GODA_{t-5} + \delta TEA_{t-2} + \epsilon_t \text{-----} (9)$$

*SE*: 교육기관 졸업률(1, 2, 3차 교육기관 포함)

*LODA*: 유상원조

*GODA*: 무상원조

*TEA*: 교원수

- 인적자본을 대표하는 변수로는 교육기관 졸업생(1, 2, 3차 교육기관)로 하였으며, 결정요인으로는 1) 교원수, 2) 대외원조로 함
  - 인적자본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변수로 졸업생 수를 선별하였음
  - 독립변수로 교원수를 설정한 이유는 베트남 국내 교육투자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변수로 교원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 또한 인적자본 형성은 투자가 이루어진 후 장기간의 시차를 가지고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독립변수에 시차를 주었으며, 시차결정은 변수간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시점으로 함
  - 본 모형에서도 불안정 시계열변수 활용으로 시계열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각 변수는 전년대비 증가율로 치환함

### □ 분석결과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모두 인적자본(졸업생 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유상원조의 경우 4기전 유상원조가 1% 증가할 경우 졸업생이 0.002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무상원조는 5기전 원조규모가 1% 증가할 경우 졸업생이 0.019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4〉 인적자본(졸업생 증가율) 결정요인 분석 결과

	계 수	t값	P-Value (오류 확률)
4기전의 유상원조 증가율	0.0028	3.49	0.3%
5기전의 무상원조 증가율	0.0199	2.36	3.1%
2기전의 교원수 증가율	0.8103	3.83	0.1%
C	-0.0031	-0.56	1.5%

주: OLS 방식으로 추정했으며, R2는 0.700임

- 무상원조가 유상원조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상원조가 일반적으로 교육부문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2기전 교원수의 증가도 졸업생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수 역시 높아 정부의 교육투자가 인적자본 형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 다. 생산요소(고정자산투자, 인적자본)의 경제성장에 대한 장기적 기여

- 생산요소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Johansen의 공적분 분석<sup>7)</sup>을 활용함
- 본 연구에서는 생산요소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식 (10) 같은 결정모형을 설정함

$$GDP = \alpha + \beta GFCF + \gamma SE + \delta POP + \epsilon_t \text{-----} (10)$$

*GDP*: 경제성장률  
*GFCF*: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SE*: 졸업률 증가율  
*POP*: 인구증가율

7) Johansen 공적분 분석은 변수간 공적분 관계의 수와 모형의 계수들을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추정하고 검정

- 모형의 변수중 GDP증가율, 인구증가율, 졸업률 증가율의 경우 단위근을 가져 불안정한 시계열이나, 모형의 변수들이 공적분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Johansen의 공적분 모형으로 장기적 추세를 분석할 수 있음<sup>8)</sup>
- 공적분의 존재는 각 변수들이 단기적으로는 상호 괴리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일정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함

□ 분석결과 장기적으로 총고정자본투자의 1% 증가는 GDP를 0.218%를 증가시키고 인적자본(졸업생 증가율)의 1% 증가는 GDP를 0.530%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인구증가율은 GDP 성장률에 마이너스(-)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증가에 따른 베트남 경제에 있어서 인구증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음이 밝혀짐

#### 추정결과

$$GDP = 0.140 + 0.218 \times GFCF + 0.530 \times SE - 7.362 \times POP \text{ ----- (11)}$$

- 회귀분석 결과 인적자본 증가율이 고정자본투자 증가율보다 장기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베트남 경제 성장에 있어 인적자본이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단지 과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인적자본 형성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임

8) Johansen 방식을 통한 공적분을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적어도 4개 이하의 변수가 공적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 대외원조의 베트남 경제 성장 기여도

□ 베트남의 경제개혁(1986년) 이후 대외원조는 총GDP의 5.5%를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대외원조는 베트남의 1986년 이후 고정자본투자의 17.0%를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유상원조는 민간투자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발로 직접적 효과(유상원조)의 40% 가까운 투자유발 효과를 발생시킴

• 유상원조의 고정자본투자에 대한 비중은 8.1% 수준임

- 유상원조가 총 고정자본투자의 11.3%(원조액+유발효과)를 기여하고, 무상원조는 5.7%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유상원조는 파생적 유발효과(민간투자,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해 베트남 고정자본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인적자본(졸업생수)에 대한 기여는 총 0.7%인 것으로 분석됨

- 유상원조가 총졸업생의 0.5%를 기여한 반면, 무상원조는 0.2%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유상원조의 규모가 크고,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하는 무상원조의 경우 효과가 수리적으로 표현되기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됨

○ GDP에 대한 기여는 단기적으로 총 GDP의 5.0%를 기여하였고, 장기적으로 0.5%를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유상원조가 3.7%를 기여하고 무상원조가 1.8%를 기여함

- 대외개발원조의 인적자본 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표 IV-5〉 대외개발 원조의 베트남 경제 기여효과(1986~2010년)

	생산요소별 기여			GDP에 대한 기여				
	고정자본투자 기여 (총고정자본투자 대비%)		인적자본 기여 (총졸업생 대비 %)	단기적 기여	장기적 기여		총기여	
	직접 기여	파생 기여	총 기여	총 기여	고정자본 증가 효과(A)	고정자산 투자의 기여(B)	인적자본 기여(C)	A+B+C
유상원조	8.1%	3.2%	11.3%	0.5%	3.3%	0.4%	0.0%	3.7%
무상원조	5.7%	-	5.7%	0.2%	1.7%	0.1%	0.0%	1.8%
총 원 조	13.8%	3.2%	17.0%	0.7%	5.0%	0.5%	0.0%	5.5%

□ 대외개발원조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를 시기별로 보면, 개발초기 시기의 경우에 그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 도이모이 개혁 이후 2000년까지의 원조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7.2%인 것으로 나타남

- 고정자본투자에 대한 기여는 총고정자본의 28.4%를 차지하여 개발초기 대외원조의 직접효과와 파생적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 특히, 유상원조에 따른 파생적 효과가 총고정자본투자의 18.4%를 차지하여 개혁·개방 초기의 베트남 경제에 있어서 유상원조의 기여는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남

- 인적자본 형성에 대한 기여는 총 졸업생수의 1.5%가 대외개발원조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장기적 효과는 고정자본형성에 따른 효과가 1.1%로 분석되었으며, 인적자본 형성에 따른 효과는 0.1%로 나타남

○ 이 시기에 대외개발원조가 크게 기여한 것은 개발초기에 인프라 및 생산설비 등 자생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축적이 국내에서 거의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외원조 및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IV-6〉 대외개발 원조의 베트남 경제 기여효과(1986~2000)

	생산요소별 기여			GDP에 대한 기여				
	고정자본투자 기여 (총고정자본투자 대비%)		인적자본 기여 (총졸업생 대비 %)	단기적 기여	장기적 기여		총기여	
	직접 기여	파생 기여	총 기여	총기여	고정자본 증가 효과(A)	고정자산 투자의 기여(B)	인적자본 기여(C)	A+B+C
유상원조	9.1%	9.3%	18.4%	0.9%	3.9%	0.9%	0.1%	4.9%
무상원조	10.0%	-	10.0%	0.5%	2.1%	0.2%	0.0%	2.3%
총 원 조	19.1%	9.3%	28.4%	1.4%	6.0%	1.1%	0.1%	7.2%

□ 베트남 경제이 경제적 성장을 위한 토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이후(2001년 이후) 대외개발원조가 경제성장에 기여도는 낮아짐

○ 2001년부터 2010년간 대외개발원조의 베트남 GDP에 대한 기여도는 4.4%로 낮아짐

- 유상원조의 베트남 GDP에 대한 기여는 3.0%이고 무상원조의 기여는 1.4%인 것으로 분석됨

- 고정자본투자에 따른 단기적 효과는 4.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정자본 투자 및 인적자본 형성에 따른 장기적 효과는 0.2%로 나타남

• 고정자본투자에 따른 장기적 기여는 0.2%, 인적자본 형성에 따른 장기적 효과는 0.02%임

○ 고정자본투자에 대한 기여는 원조전체로 보았을 때 12.4%로 나타남

- 유상원조의 경우 직접적 효과가 7.7%, 파생적(민간투자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도) 효과가 0.7%인 것으로 나타남

- 무상원조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유발효과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 효과가 4.0%를 기여함

- 인적자본 형성에 대한 기여는 유상원조가 총졸업생중 0.02%를 무상원조가 0.04%를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결과는 무상원조가 경제가 안정화된 상황에서 인적자본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음

〈표 IV-7〉 대외개발 원조의 베트남 경제 기여효과(2001~2010)

	생산요소별 기여				GDP에 대한 기여 (GDP 대비 %)			
	고정자본투자 기여 (총고정자본투자 대비%)		인적자본 기여 (총졸업생 대비 %)	총 기여	단기적 기여	장기적 기여		총기여
직접 효과	파생 효과	총 효과				고정자본 증가 효과(A)	고정자산 투자의 기여(B)	
유상원조	7.7%	0.7%	8.4%	0.02%	2.9%	0.10%	0.00%	3.0%
무상원조	4.0%	-	4.0%	0.04%	1.3%	0.02%	0.03%	1.4%
총 원 조	11.7%	0.7%	12.4%	0.07%	4.2%	0.12%	0.03%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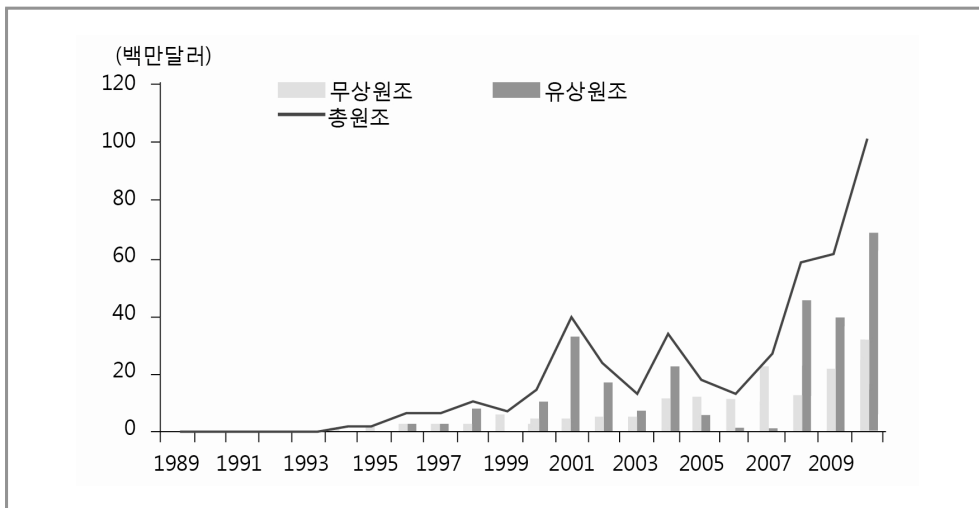
# V

## 한국 대베트남 원조의 경제성장 기여 분석

### 1. 한국의 대베트남 원조 현황

- 한국의 대베트남 원조는 1989년 무상원조 3만달러를 시작(집행기준)으로 연평균 47%라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2010년에는 1억 100백만달러를 기록함
- 무상원조는 연평균 39%의 증가세를 보이며 2010년 3,200백만달러로 원조 규모가 증가함

〈그림 V-1〉 한국의 대베트남 대외개발원조 추이



자료: OECD DAC

- 유상원조 규모는 1996년 363만달러를 지원한 이후 연평균 23%의 성장세를 보이며 2010년에 6,875만달러로 증가함
- 유상원조가 총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임

□ 분야별로 보면 경제인프라에 대한 원조가 67.9%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인프라에 대한 원조가 30.6%를 차지하고 있음

- 경제인프라에 대한 원조는 교통 및 통신 분야가 경제인프라중 9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사회인프라 분야에서는 상하수도 부문에 대한 지원이 사회인프라 지원중 34%를 차지하고,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이 23%를 기록하고 있음
- 반면, 생산시설에 대한 원조가 0.5%로 매우 낮으며 인도적 지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분포를 베트남 총원조의 비중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제인프라에 대한 지원 특히, 교통 및 통신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임

〈표 V-1〉 베트남 원조 분야별 비중 추이

	2006	2007	2008	2009	2010	총합
사회인프라	85.2%	43.9%	42.5%	23.5%	6.4%	30.6%
교육	8.5%	15.4%	2.4%	4.1%	5.3%	7.1%
상하수도	64.5%	4.7%	31.5%	2.3%	0.0%	10.4%
경제인프라	11.5%	53.0%	56.8%	75.4%	93.0%	67.9%
교통 및 통신	10.3%	52.4%	55.5%	75.4%	92.6%	67.4%
에너지	1.0%	0.5%	1.2%	0.0%	0.0%	0.4%
생산설비	2.1%	0.6%	0.4%	0.4%	0.4%	0.5%
농수산 설비	0.7%	0.2%	0.3%	0.3%	0.3%	0.3%
산업설비	0.8%	0.3%	0.1%	0.0%	0.1%	0.2%
교역 및 관광 관련설비	0.7%	0.1%	0.0%	0.0%	0.0%	0.1%
인도적원조	0.1%	0.0%	0.0%	0.0%	0.0%	0.0%

자료: OECD DAC

- 반면, 에너지 분야와 산업설비, 프로그램 지원 등 분야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2. 한국 원조의 베트남 경제성장 기여도

### 가.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

□ 한국의 대베트남 1996년 이후 개발원조의 GDP 기여도는 0.1%인 것으로 분석됨<sup>9)</sup>

○ 유상원조의 GDP 기여도는 0.07%, 무상원조의 기여도는 0.03%인 것으로 분석됨

- 유상원조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은 분석시기의 한국의 유상원조의 비중이 무상원조 비중보다 높기 때문임

- 한국의 대베트남 원조중 60%가 유상원조이며, 1989년 이후 한국 원조가 베트남 원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유상원조가 1.7%, 무상원조가 1.5%로 유상원조의 비중이 높음

- 이는 한국의 대 베트남 원조가 유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 효과도 유상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유상원조에 따른 고정자본투자 증가로 GDP의 0.07%를 기여했으며, 무상원조에 의한 효과는 0.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고정자본투자에 대한 기여는 0.26%로 직접적 효과가 0.25%, 파생적 효과가 0.01%를 차지함

---

9) 1996년을 분석시작 시점으로 결정한 이유는 한국의 베트남 원조는 1989년 무상으로 시작되었으나, 1996년 유상원조가 시작되면서 본격화 되었다고 판단되고, 유상과 무상원조의 효과를 동일하게 비교하기 위해서임

〈표 V-2〉 한국 대외개발 원조의 베트남 경제 기여효과(1996~2010)

	생산요소별 기여				GDP에 대한 기여 (GDP 대비 %)			
	고정자본투자 기여 (총고정자본투자 대비%)			인적자본 기여 (총졸업생 대비 %)	단기적 기여	장기적 기여		총기여
	직접 효과	파생 효과	총 효과	총 기여	고정자본 증가 효과(A)	고정자산 투자의 기여(B)	인적자본 기여(C)	A+B+C
유상원조	0.16%	0.01%	0.17%	0.000%	0.06%	0.01%	0.00%	0.07%
무상원조	0.09%	-	0.09%	0.002%	0.03%	0.003%	0.00%	0.03%
총 원 조	0.25%	0.01%	0.26%	0.002%	0.09%	0.01%	0.00%	0.10%

- 파생적 효과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은 한국의 대베트남 원조의 시작 시점이 베트남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패도에 올라선 이후로 원조 초기에 발생하는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임
- 인적자본 형성(졸업생수)에 대한 기여는 유상원조가 아주 미미하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상원조의 기여도 0.002%로 유상원조보다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남
- 인적자본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2000년대의 총원조 분석에서와 동일한 결과로 한국의 무상원조 역시 인적자본에 대하여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3. 한국의 지원분야별 기여

#### 가. 경제인프라 지원 내용 및 효과

- 교통 분야 : 한국의 원조를 통해 총 연장 155.6Km가 건설됨. 이는 경인고속도로(29.5Km)를 5.3개를 건설한 것과 동일한 것임
- 교통분야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유상원조로 이루어져 7개의 프로젝트가 실행됨

〈표 V-3〉 한국 대외개발 원조의 베트남 교통시설 지원 현황

주요 교통지원 프로젝트	도로건설 규모	지원승인액 (백만달러)	비 고
18번 국도 개량사업	56Km	24.0	유상원조
GMS 남부해안 연결도로사업	21.3Km	49.68	유상원조
락지아 우회도로 건설사업	24.6Km	82.78	유상원조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	9.3Km	100.00	유상원조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10구간)	9.1Km	100.00	유상원조
베트남 빈틴 교량 건설사업	4.4Km	100.00	유상원조
GMS 남부해안 연결도로사업	31Km	70.00	유상원조

□ 발전소 분야 지원 : Ba Ria 복합화력 발전설비 사업을 지원함

- 발전규모는 61.7Mw급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총 지원규모 5,599만달러임

□ 기타 : 생산시설, 고체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

- 생산시설로는 백신생산공장 건설사업(승인액: 2,846만달러)가 있음
- 고체폐기물 사업으로는 하이퐁(승인액: 1,962만달러), 닌빈(2,097만달러), 빈푹 지역 사업 등이 있음
- 디지털 방송 인프라 확충사업에 2,500만달러를 지원했으며, 호치민~쑹릉 고속도로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에 3,000만달러를 지원함
- 프로그램 사업으로는 탕화시 사회경제개발사업에 3,273만달러를 지원함

나. 사회인프라 지원 내용 및 효과

- 상하수도 시설 : 총정수량 163,000m<sup>3</sup>/일로 한국의 김포시 총정수량 (137,000m<sup>3</sup>/일)규모의 시설을 지원함



〈표 V-4〉 한국 대외개발 원조의 베트남 상수도시설 지원 현황

주요 교통지원 프로젝트	정수량(m <sup>3</sup> /일)	지원승인액 (백만달러)	비고
Thien-Tan 상수도 사업	100,000	26.00	유상원조
Thien-Tan 상수도 사업(2차)		6.85	유상원조
호아빈 상수도 건설사업	17,000	14.35	유상원조
목짜우 상수도 건설사업	6,000	12.98	유상원조
호안칸터이 상수도 건설사업	40,000	30.00	유상원조
끼엔장성 식수개발사업	-	2.40	무상원조

- 상수도 사업으로는 총 5개 프로젝트가 수행되었으며, 총지원 규모는 9,000만 달러 수준임
  - 대부분 유상원조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끼엔장성 식수개발사업의 경우 무상방식으로 이루어짐
- 하수도 사업으로는 비엠티 하수도 건설사업으로 3,291만달러가 지원됨
- **교육인프리에 대한 지원: 유무상으로 총 10여개의 프로젝트 지원이 있었으며, 이외 무상으로 교육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총 지원규모 6,670만달러로 유상원조가 4,690만달러, 무상원조가 1,980만달러 지원됨
  - 무상원조는 이외에도 직업훈련원 지원, 국내초정연수, 전문가 파견 등의 방식으로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함
    - 직업훈련원 지원으로는 퀴논 직업훈련원(250만달러 지원), 하노이 직업훈련원 지원(250만달러 지원), 경제연구소 지원(80만달러) 등이 있음
    - 국내초청연수는 총 2,674명이 국내에서 연수(1,326만달러 지원)를 받았으며, 베트남에 53명이 전문가로 파견(84.3만달러 지원)됨

〈표 V-5〉 한국 대외개발 원조의 베트남 교육시설 지원 현황

주요 교통지원 프로젝트	지원효과	지원승인액 (백만달러)	비고
5개 지역 한베 직업기술대학 건립 사업	학생수요 규모 9,040명	35.00	유상원조
탕화시 직업기술대학 개선사업	교육기자재 공급	3.00	유상원조
하띤성 중등직업학교 개선사업	기자재 공급 및 교육훈련	2.98	유상원조
꽝빈성 직업전문학교 개선사업	기자재 공급 및 교육훈련	2.96	유상원조
지아라이성 아운파 중등직업학교 개선사업	교육기자재 공급	2.96	유상원조
네안성 학교건축사업	교실 12개	0.25	무상원조
빈딩성 학교건축사업	교실 15개	0.25	무상원조
한베 산업기술학교 지원사업	교육기자재 공급	5.00	무상원조
중부지역 초등학교 건립사업	교실 40개	2.00	무상원조
한베 친선 IT대학 설립사업	-	10.00	무상원조
산업기술학교 증축 및 역량 강화사업	강의실 연면적 3,400m <sup>3</sup>	2.30	무상원조

□ 보건의료 지원: 병원 건축 및 개선, 의료장비 지원 사업 방식으로 이루어짐

○ 병원 건축 및 개선, 의료장비 지원, 연수생 초청 등으로 약 1억 2,100만 달러 규모가 지원됨

- 유상원조로 8개 프로젝트에 1억1,400만달러가 지원되었으며, 무상원조는 8개 프로젝트를 통해 730만달러를 지원함
- 유상원조 프로젝트 중에는 500개 병실 규모의 대규모 종합병원 프로젝트가 2개가 있음(투아틴엔훼 종합병원, 옌바이 종합병원)
- 이외의 대부분 사업은 병원 개보수, 의료장비 지원, 연수생 초청, 의사 및 간호사 파견 등의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짐

〈표 V-6〉 한국 대외개발 원조의 베트남 의료시설 지원 현황

주요 교통지원 프로젝트	지원효과	지원승인액 (백만달러)	비고
투아틴엔웨이 종합병원 건립사업	500개 병상	30.86	유상원조
닥농성 종합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의료기자재 1,277개	5.69	유상원조
라이짜우성 종합병원 개선사업	의료기기 공급	10.00	유상원조
지아라이성 플레이쿠시 종합병원 개선사업	의료기기 공급	3.00	유상원조
탕화성 하쯔옴 종합병원 개선사업	의료기기 공급	3.00	유상원조
엔바이 종합병원 건립사업	500개 병상	45.00	유상원조
까마우성 종합병원 개선사업	의료기기 공급	2.96	유상원조
다낭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방사선 치료 의료기기 공급	13.60	유상원조
Korea Clinic 사업	의료장비 및 연수생 초청	0.25	무상원조
호치민 엽대병 센터 지원사업	의료장비 및 연수생 초청	0.50	무상원조
박빈병원 건축사업	외과병동 건축, 의료장비 지원	0.50	무상원조
홍케병원 건축사업	외과병동 건축, 의료장비 지원	0.50	무상원조
독포지역 병원개보수	병동건축(2,452m <sup>2</sup> ) 의료장비 지원	0.50	무상원조
한베 우정병원지원 2차사업	물자지원 및 연수생 초청	0.25	무상원조
빈록 지방병원 개선사업	병동건축(1,717m <sup>2</sup> ) 물자지원	0.50	무상원조
한베 친선 병원 3차사업	외래병동건축 (2,093m <sup>2</sup> ) 등	1.30	무상원조
중부지역 병원건립사업	어린이 병원 5개 병원 건립	3.00	무상원조

## VI

## 결론 및 시사점

- 대베트남 대외개발원조가 베트남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외 개발원조가 파생효과를 발생시켜 원조액 이상의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에 대한 대외개발원조는 유상원조의 경우 국내 민간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를 견인하여 총고정자본 투자 증가에 기여함
    - 유상원조는 인적자본 형성에도 기여하여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형성하는데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무상원조의 경우 유상원조 다르게 국내 민간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발시키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계량분석 결과 두 부문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남
  - 그러나 무상원조는 인적자본 형성에 대한 기여에 있어 유상원조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무상원조가 주로 지원되는 분야 즉 교육, 의료 등의 사업으로 통한 인적자본에 대한 기여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결국 베트남 경제에 있어서 유상원조는 경제인프라를 개발하여 국내 및 외국 투자를 유발함으로써 베트남 경제의 고정자본투자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무상원조는 인적자본 형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계량적으로 유추할 수 있음

□ 한국의 베트남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는 GDP의 0.1% 수준임

- 이러한 기여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한국의 원조규모가 총원조의 0.19% 수준으로 크지 않기 때문임
- 그러나 동일한 시기의 총원조 GDP 기여도가 4.6%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효과성이 낮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총원조 기여도의 4.6%의 1.9%는 0.87% 수준임
- 또한 한국은 원조의 중점분야를 교통, 상하수도 등 인프라에 집중하여, 베트남에 경인고속도로 5개 규모의 도로를 건설하고, 김포시 규모의 정수 시설 건설을 지원함

## □ 한국 ODA의 발전과정

- 우리나라는 1987년 대외경제협력법을 제정·실시하면서 국제 개발원조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작
  - 이 법령은 대외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의 설립을 승인하여 재정경제부의 책임하에 개발도상국에 유상원조(차관)를 공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자금의 운용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음.
- 1991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법인으로 설립하여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원조 공여 시작
- 그 외에도 중정정부의 몇몇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예산으로 대외 원조를 제공해 왔으나, 지난 20년간 한국의 대부분의 ODA는 EDCF와 KOICA를 통해 이루어져 옴.
- 2010년 한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선진 공여국으로 인정받게 됨.

## □ 원조유형별 ODA 공여 현황

- 1987년 2,350만 달러의 원조로 시작한 한국의 ODA는 원조 규모는 1993년 1억 1,160만 달러로 1억 달러를 돌파한 뒤 2010년에는 11억 7,300만 달러까지 증가

〈표 1〉 한국 ODA 원조유형별 현황

단위: US \$ million,%

년도	한국 ODA									ODA/ GNI (%)	1인당 ODA (\$)
	양자간 ODA						다자간 ODA		ODA 총계		
	유상원조		무상원조		소계	%	소계	%			
	\$	%	\$	%							
1987	-	-	1.4	100	1.4	6	22.1	94	23.5	0.02	0.56
1988	-	-	2.1	100	2.1	6	31.9	94	34.0	0.02	0.89
1989	1.8	35	3.3	65	5.0	15	28.8	85	33.8	0.02	0.80
1990	9.0	73	3.3	27	12.3	20	48.9	80	61.2	0.02	1.43
1991	6.5	21	25.0	79	31.5	55	26.0	45	57.5	0.02	1.33
1992	14.2	31	31.0	69	45.2	59	31.6	41	76.8	0.03	1.76
1993	27.4	46	32.7	54	60.1	54	51.4	46	111.6	0.03	2.52
1994	21.6	36	38.5	64	60.1	43	80.2	57	140.2	0.04	3.14
1995	21.4	30	50.1	70	71.5	62	44.5	38	116.0	0.03	2.57
1996	69.9	57	53.4	43	123.3	77	35.8	22	159.2	0.03	3.50
1997	56.6	51	54.8	49	111.3	60	74.3	40	185.6	0.04	4.04
1998	87.5	70	37.2	30	124.7	68	58.0	32	182.7	0.06	3.95
1999	92.4	70	39.0	30	131.4	41	186.2	59	317.5	0.08	6.81
2000	83.4	64	47.8	36	131.2	62	80.9	38	212.1	0.05	4.51
2001	118.6	69	53.0	31	171.5	65	93.1	35	264.7	0.06	5.59
2002	140.1	68	66.7	32	206.9	74	72.0	26	278.8	0.06	5.85
2003	99.7	41	145.5	59	245.2	67	120.7	33	365.9	0.06	7.65
2004	118.7	38	193.0	62	311.6	77	91.6	23	403.3	0.06	8.80
2005	145.3	31	318.0	69	463.3	62	289.0	38	752.3	0.10	15.59
2006	117.1	31	259.0	69	376.1	83	79.2	17	455.3	0.05	9.43
2007	132.2	27	358.3	73	490.5	70	205.6	30	696.1	0.07	14.37
2008	170.6	32	368.7	68	539.2	67	263.1	33	802.3	0.09	16.51
2009	214.1	37	367.0	63	581.1	71	234.9	29	816.0	0.10	16.79
2010	326.7	36	576.9	64	900.6	77	273.2	23	1,173.8	0.1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주: 순지출 기준

- 그러나 OECD 가입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 경제 규모 대비 원조의 규모는 매우 작은 수준
  - 2010년 우리나라의 국민순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2%로 DAC 가입국 평균 0.32%의 3분의 1수준에 불과
  - 한국은 2010년 DAC 가입에 앞서 2015년까지 ODA/GNI 비율을 0.25% 까지 확대하기로 공약하였음.
- 분야별로는 2000년도까지 다자간 원조가 약 40% 이상을 차지해 왔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30%대 수준을 유지해옴.
- 양자간 원조의 비율은 2000년도 이후 전체 ODA의 70% 이상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이 가운데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비율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약 3:7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음.

#### □ 지역별·소득그룹별 ODA 공여 현황

- 우리나라가 공여한 양자간 원조의 수원국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아시아 국가의 비율이 전체 양자간 원조액의 50~80% 수준으로 가장 높음.
  -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중반까지 70~80%에 이르던 대 아시아 원조 비율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줄어들어 2009년에는 54%를 차지
- 아시아 다음으로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순이며, 아시아 지원 비중이 줄어든 만큼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지원 비중이 소폭 늘어남.
- 2000년 이후 양자간 원조의 수원국 국민소득별 분포를 보면, 하위 중소득국이 2005년 57%를 차지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09년 35%까지 떨어졌으나 상대적으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 다음으로는 최빈국이 20% 후반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저소득국 10%대 수준, 상위 중소득국이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음.



〈표 2〉 양자간 원조 지역별 현황

단위: US \$ million, %

년도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 미배분		합 계
	\$	%	\$	%	\$	%	\$	%	\$	%	\$	%	
1987	0.11	8	0.9	63	0.12	8	-	-	-	-	0.28	20	1.42
1988	0.1	5	1.27	60	0.07	3	0.03	1	0.24	11	0.39	19	2.1
1989	1.95	39	1.14	23	0.15	3	0.03	1	0.76	15	1.02	20	5.04
1990	9.13	75	1.61	13	0.06	0	0.03	0	0.34	3	1.08	9	12.25
1991	5.27	17	13.61	43	3.59	11	0.14	0	1.21	4	7.71	24	31.52
1992	12.11	27	16.59	37	3.03	7	0.15	0	1.32	3	12.01	27	45.22
1993	23.52	39	19.66	33	3.7	6	0.52	1	1.1	2	11.62	19	60.12
1994	13.93	23	29.43	49	3.59	6	0.12	0	1.05	2	11.96	20	60.07
1995	15.2	21	30.43	43	3.66	5	4.77	7	1.39	2	16.01	22	71.46
1996	14.88	12	71.67	58	11.28	9	7.89	6	1.53	1	16.07	13	123.3
1997	12.28	11	69.76	63	10.21	9	3.64	3	1.91	2	13.54	12	111.3
1998	5.2	4	104.7	84	4.69	4	0.16	0	0.93	1	9.02	7	124.7
1999	10.23	8	106.4	81	4.92	4	0.09	0	0.69	1	8.98	7	131.4
2000	24.28	19	82.72	63	12.23	9	0.36	0	2.2	2	9.4	7	131.2
2001	4.41	3	124.5	73	13.81	8	13.66	8	4.18	2	11.03	6	171.5
2002	5.62	3	161.8	78	8.86	4	18.92	9	1.16	1	10.4	5	206.8
2003	18.98	8	192.5	79	11.16	5	3.06	1	4.84	2	14.66	6	245.2
2004	28.07	8	258.8	78	14.89	5	7.03	2	0.41	0	21.55	7	330.8
2005	39.12	8	374.9	81	19.8	4	3.28	1	0.52	0	25.64	6	463.3
2006	47.8	13	227.6	61	25.88	7	31.11	8	1.18	0	42.5	11	376.1
2007	70.17	14	300	61	54.69	11	16.91	3	3.7	1	45.05	9	490.5
2008	104.1	19	281.4	52	68.69	13	12.89	2	2.23	0	69.98	13	539.2
2009	95	16	313.5	54	55.8	10	46.4	8	1.5	0	68.9	12	581.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주: 순지출 기준

〈표 3〉 양자간 원조 소득그룹별 현황

단위: US \$ million, %

구분	최빈국		기타 저소득국		하위 중소득국		상위 중소득국		고소득국		소득 미배분		합계
	\$	%	\$	%	\$	%	\$	%	\$	%	\$	%	\$
2000	21.24	16	38.69	29	50.77	39	10.47	8	0.01	0	10	8	131.18
2001	8.35	5	64.34	38	62.76	37	24.97	15	0.04	0	11.08	6	171.54
2002	45.74	22	44.71	22	83.56	40	22.31	11	0.01	0	10.43	5	206.76
2003	56.88	23	38.8	16	130.26	53	4.53	2	0.01	0	14.69	6	245.17
2004	86.05	26	53.02	16	164.52	50	5.32	2	0.09	0	21.76	7	330.76
2005	114.92	25	52.89	11	264.86	57	4.8	1	-	-	25.83	6	463.3
2006	92.12	24	48.34	13	185.65	49	5.21	1	-	-	44.74	12	376.06
2007	120.99	25	64.38	13	228.71	47	16.93	3	-	-	59.5	12	490.52
2008	144.26	27	68.51	13	207.8	39	28.16	5	-	-	90.49	17	539.22
2009	161.18	28	76.45	13	204.18	35	38.83	7	-	-	100.46	17	581.1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주: 순지출 기준

#### □ 분야별 ODA 공여 현황

- 분야별로는 교육, 보건, 수자원 및 위생 등을 포함하는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가 2009년 기준 47%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는 2000년대 중반에는 60%를 넘을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40% 수준으로 정착
- 다음으로는 교통, 통신, 에너지 개발 및 공급 등을 포함하는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가 2009년 기준 26%를 차지하며 두번째를 차지
  -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까지 사이에서는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를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함.
- 농업, 임업, 어업 및 산업, 광업, 건설 등을 포함하는 생산(산업)부문이 꾸준히 10% 내외를 유지해왔으며, 그 밖의 대부분, 인도적 지원, 원조국의 행정비용 등이 5% 미만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음.

〈표 4〉 양자간 원조 분야별 현황

단위: US \$ million

년도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생산 (산업) 부문	다부문	물자지원 /일반 프로그램 원조	인도적 지원	원조국의 행정비용	NGO 지원	기타 (미배분 포함)	합 계
1987	1.21	22.65	-	-	-	-	0.28	-	-	24.13
1988	1.78	10.42	-	-	-	-	0.39	-	-	12.59
1989	2.17	6.55	-	-	-	-	1.02	-	-	9.74
1990	2.05	32.69	-	-	-	-	1.08	-	-	35.81
1991	56.71	25.37	11.09	0.11	-	0.82	7.6	-	-	101.68
1992	41.35	8.95	8.43	1.2	-	1.03	11.57	-	-	72.54
1993	13.87	16.39	3.98	0.84	-	0.51	11.15	-	-	46.74
1994	29.49	98.75	27.54	-	-	0.57	11.36	-	0.03	167.72
1995	52.81	132.53	9.65	-	7.05	0.53	14.49	0.84	0.65	218.55
1996	85.33	303.43	23.5	-	-	0.93	14.64	0.67	0.97	429.47
1997	102.16	55.1	10.77	-	-	0.64	12.33	0.65	0.51	182.16
1998	60.81	80.41	15.24	1	-	0.48	8.53	0.23	0.13	166.83
1999	149.17	83.52	6.98	1.03	-	1.02	8.2	0.36	0.46	250.72
2000	108.41	122.61	5.34	10.99	-	0.51	8.02	0.55	0.83	257.25
2001	56.38	74.44	5.24	20.72	-	8.18	8.11	0.83	0.7	174.59
2002	160.26	71.6	7.17	1.38	-	2.96	9.03	1.39	0.72	254.51
2003	136.91	108.85	38.27	7.14	1.02	2.99	13.03	6.63	1.76	316.59
2004	314.59	113.12	18.8	2.31	0.04	12.9	17.51	1.75	2.44	483.45
2005	398.25	138.12	50.25	3.63	-	36.87	19.38	4.54	6.76	657.79
2006	403.09	170.95	33.5	9.16	0.22	24.62	25.31	5.34	3.32	675.49
2007	410.5	402.86	128.99	31.79	0.34	35.51	31.54	6.83	4.9	1,053.27
2008	696	544.52	77.44	24.52	1.55	55.78	31.51	9.1	14.52	1,454.96
2009	273.51	152.47	59.90	37.60	0.08	16.78	27.76	7.76	5.25	581.10
	47%	26%	10%	6%	0%	3%	5%	1%	1%	1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주: 순지출 기준

### 〈참고문헌〉

- 김태항(2012), “ODA가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가?”, 한국의 개발협력 2012년 1호.
- 손승호(2008), “한국기업 베트남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 1996·2000년 투입산출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 박사학위 논문.
- 이재우(2006), “한국의 경제개발 과정에 있어 유·무상원조의 효과 분석”, 수은해외경제, 2006년 9월호.
- 맹준호(2012), “원조와 성장에 관한 재고”, 한국의 개발협력 2012년 2호.
- 장영훈(2011), “베트남 ODA 수용정책의 제도적 성과 및 평가”, 한국의 개발협력 2011년 2호.
- 정 혁(2012), “유효한 개발원조 정책 수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한국의 개발협력 2012년 2호.
- Bakare, A. S.(2011), “The Macroeconomic Impact of Foreign Aid in Sub-Saharan Africa : The Case of Nigeria”, Business and Management Review Vol. 1, No. 5.
- Dalgaard, C., Hansen, H. and Tarp, F.(2004), “On the Empirics of Foreign Aid and Growth”, The Economic Journal 114(June)
- Le Thanh Nghiep and Le Uuu Quy(2000), “Measuring the Impact of Doi Moi on Vietnam's Gross Domestic Product”, Asian Economic Journal Vol. 14, No. 3.
- Mallik, G.(2008), “Foreign Aid and Economic Growth : A Cointegration Analysis of the Six Poorest African Countries”, Economic Analysis & Policy Vol. 38, No. 2
- Rajan, R. G. and Subramanian, A.(2008), “Aid and Growth : What Does the Cross-Country Evidence Really Show?”,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0(4).

## 한국 원조의 베트남 경제성장 기여효과 분석

---

발행일: 2012년 12월

발행처: 한국수출입은행

우편번호 150-99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